

遼城의 脈

崔善鎬 編著

高城郡文化院





著者 崔 善 鎬

1944년생 고성출생
고성고등학교졸업(인문계)
인제군청, 고성군청, 태백시청,
속초시청, 양양군청 근무,
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홍보,
총무과장, 통일교육전문위원,
속초시 민방위대원정신교육강사,
설악신문기자, 설해신문기자,
월드관광저널기자,
고성라이온스클럽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
사무국장,
고성군문화원 감사, 전문위원.

遼城의脈

崔善鎬 編著



高城郡文化院

發 刊 辭



우리 地域 高城은 秀麗한 自然環境과 함께 古代人들의 定着生活로부터 歷史를 形成하여 순박한 心性和 강인한 愛鄉精神으로 悠久한 歷史와 격조높은 文化生活을 發展시켜왔습니다.

21세기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高城文化院에서는 高城地域의 올바른 鄉土史에 대한 歷史的·文化的 傳統을 啓發하여 전승하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等, 기본사서에 수록된 우리고장의 鄉土 歷史와 文化財 人物 사회 문화상을 三國時代부터 중세인 高麗시대, 근세인 朝鮮時代, 근현대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迺城의 脈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는 歷史와 文化를 새로운 삶의 중심가치로 삼고 자연스럽게 우리 鄉土史를 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努力해야 하겠습니다.

時間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져가는 우리 地域의 古代부터 現代에 이르는 歷史의인 人物 및 史料를 再整備 함으로써 우리의 貴重한 文化 遺産과 歷史的 意味를 널리 알림으로서 우리 郡民들에게 主人意識과 愛鄉心을 길러주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地域의 鄉土史와 傳統文化에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調查 研究하여 貴重하고 가치있는 迺城의 脈을 編輯하여 高城郡 鄉土史料 集으로 엮어주신 高城郡 文化院 鄉土史料 調查研究委員이신 崔善鎬 위원님의 勞苦와 冊字가 發刊될 수 있도록 支援해 주신 고성군수 함형구님과 당국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2005. 7. 20.

高城郡 文化院長 黃 鍊 仁

祝 刊 辭

지역의 문화유적을 재조명하고 향토문화의 전승을 위한 고성군문화원의 「수성의 맥」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자수명한 우리 고성은 곳곳에 조상들의 삶의 자취와 애환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수성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며,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서도 오늘날의 고성은 흔들림없이 더욱 그 빛을 발하여 각광받고 있습니다.

씨앗에 그 식물의 미래가 달려 있듯이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역사와 문화를 근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수성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고, 계승·발전시켜 급변하는 사회속에서도 우리 지역만의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그동안 고성군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문화창달을 통해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향기를 발산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수성의 맥」 또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현장을 재조명하고 국토분단의 수난속에서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온 고성의 역사를 수록한 향토사로서 고유한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널리 보급되어 고성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고성의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발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 7. 20.

고 성 군 수

祝 刊 辭

우리 전통문화 유산의 뿌리를 찾아서 밝히고 그 얼을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역의 맥(脈)과 향토사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립하고, 새로이 발굴된 부분을 보완하여 되새기는 작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깊은 우리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를 가졌고 독특한 전통문화를 일구고 가꾸어 왔습니다.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위해 발간된 「遼城의 맥(脈)」이 지역주민에게는 애향심, 자부심을 부여하고 후손들에게는 통일시대의 남·북 고성의 뜨거운 숨결과 역동하는 지역의 힘찬 맥박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소중한 향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나간 역사는 다가올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세계화의 거대한 時流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을 체계적으로 엮은 「遼城의 맥(脈)」은 지역의 뿌리를 확인시키고, 선조의 얼과 정신을 후손에 계승시켜 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신 최선호 선생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보내면서, 널리 읽혀지고 귀중한 향토자료집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20.

고성군의회 의장

- 9 고성군(高城郡)의 역사(歷史)
- 15 청간정(淸澗亭)
- 18 천학정(天鶴亭)
- 21 송호정(松湖亭)
- 23 고성선유담(高城仙遊潭), 일명:가학정(駕鶴亭)
- 25 건봉사(乾鳳寺)
- 28 건봉사 불이문(乾鳳寺 不二門)

- 30 금강산건봉사 능파교(金剛山乾鳳寺 凌波橋)
- 33 건봉사(乾鳳寺)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
- 36 건봉사(乾鳳寺) 십파라밀 석주(十坡羅密 石柱)
- 39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乾鳳寺 泗冥大師 記蹟碑)
- 42 금강산 화암사(金剛山 禾巖寺)
- 45 건봉사(乾鳳寺) 극락암(極樂庵)
- 48 간성 향교(杆城 鄉校)

- 51 화진포(花津浦)
- 54 화진포 호수주변에 군락이룬 청동기 유적
- 57 송지호(松池湖)
- 60 고성통일 전망대(高城統一 展望臺)
- 63 금강산(金剛山)의 자락 구선봉(龜仙峰)
- 65 간성은행(杆城銀杏)나무
- 68 간성 하리(杆城 下里)우물

- 70 고성산(古城山)과 관대암(冠帶岩)
- 72 고성산(古城山) 수타사의 전설(傳說)
- 75 문암 능파대(文岩 凌波臺)
- 77 어명기 전통가옥(魚命驥 傳統家屋)
- 79 함형찬 전통가옥(咸炯贊 傳統家屋)
- 82 이덕균 전통가옥(李德均 傳統家屋)
- 85 왕곡(旺谷)마을 민속촌(民俗村)





- 88 전봉상 효자각(全鳳祥 孝子閣)
- 90 양근함씨 4세효자각(楊根咸氏 四世孝子閣)
- 92 함희석 효자각(咸熙錫 孝子閣)
- 95 노상언 효자각(盧象彦 孝子閣)
- 97 열녀 연안김씨(烈女 延安金氏)
- 99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
- 101 고성금단 작신가면(高城錦鍛 作神假面)놀이

- 103 수성(迎城) 수호신(守護神) 제단(祭壇)
- 105 현감택당 이공거사비(縣監澤堂 李公去思碑)
- 107 간성향교 기적비각(杆城鄉校 記蹟碑閣)
- 110 고성 망배단(高城 望拜壇)
- 113 향로봉지구 전적비(香爐峰地區 戰蹟碑)
- 116 대대리 충혼비(大垞里 忠魂碑)
- 119 간성읍(杆城邑) 와우산 충혼탑(忠魂塔)

- 121 호림유격 전적비(戰績碑)
- 124 반공의거 순국비(反共義舉 殉國碑)
- 126 베트남 참전기념탑(參戰記念塔)
- 130 창조(創造)의 탑(塔)
- 133 왕곡(旺谷)마을 동학(東學)의 빛
- 136 금수리사지 석탑(金水里寺址 石塔)
- 139 초도리 금구도 성지(草島里 金龜島 城址)



- 142 오호리 죽도 성지(五湖里 竹島 城址)
- 145 원암리 사지(元岩里 寺址)
- 147 간촌리 사지(良村里 寺址)
- 149 마차진리(麻次津里) 제당(祭堂)
- 152 진부령(陳富嶺) 알프스 스키장
- 154 향로봉(香爐峰)과 진부령(陳富嶺)







高 城

고성군의 역사

머리말

고성군은 강원도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동해안을 끼고 세계적인 명승지인 금강산의 외금강과 해금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서로는 인제군, 남으로는 속초시와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휴전선과 북한의 통천군,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의 서부지역은 태백산맥과 접하는 험준한 산악지대이며, 동해와 연하는 저지대에 약간의 농경지가 발달하고 어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제까지 강원도 영동지방은 선사시대의 공백지대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 고성군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문화의 실체가 밝혀짐으로써, 한국선사문화의 교류와 전파문제의 규명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고성지역은 함경도 일대에서 이룩된 한반도 동북부 문화와 경상도 일대의 동남부 문화를 해안을 따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고성군은 삼국시대 이래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여 온 간성지방과 고성지방이 통합, 편제되어 있다. 간성지방은 고구려 때 수성군(遯城郡) 또는 가라홀(加羅忽)로 불리다가 통일신라때 수성군(遯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그리

고 고려 현종대에 간성현(杆城縣)으로 편제된 이래 1919년 고성군의 일부로 편입되기까지 간성현 또는 간성군으로 불리었다.

고성지방은 고구려 때에는 달홀(達忽)이라 일컬어지다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진흥왕대에는 주(州)가 되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된 이래로 계속 그 명칭을 유지하였다. 1914년 간성지역과 함께 일시 간성군으로 통합되었으나, 이것이 1919년 고성군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선사시대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술지표조사로 인해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신석기시대 유적인 문암리(文岩里) 유물산포지가 발견됨으로써 신석기시대부터 고성지방에 인류가 거주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양군(襄陽郡) 오산리(鰲山里)와 유사한 성격의 유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태백산맥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구릉들과 그 계곡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해안과 접하여 만들어진 석호(潟湖) 주변의 모래언덕은 선사인들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고성지방을 포함한 강원도 일대에는 부족국가들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고성군 현내면(縣內面) 초도리(草島里)와 죽정리(竹亭里), 거진읍(巨津邑)의 거진리(巨津里), 봉평리(蓬坪里), 화포리(花浦里), 간성읍(杆城邑)의 신안리(新安里)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및 고인돌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물로는 거푸집 및 다량의 돌칼(石劍)과 민무늬토기의(無文土器片)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초기철기시대 유적도 발견되고 있어 철기문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제시대의 조사에서 고성군 서면(西面) 시랑리

(侍郎里), 수동면(水洞面) 외면리(外沔里), 현내면(縣內面) 명파리(明波里), 오대면(梧岱面, 지금의 거진읍) 송정리(松亭里), 군내면(郡內面, 지금의 간성읍) 장신리(長新里), 토성면(土城面), 천진리(天津里) 등에 고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 고성지방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간성지역과 고성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간성지역은 수성군(遼城郡) 또는 가라홀(加羅忽)이라 불리었으며, 고성은 달홀(達忽)로 불리었다.

이후 삼국의 세력경쟁 속에서 이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국경지대가 되어 변방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6세기 이후 이 지역은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 29년(568)에는 달홀을 주(州)로 승격시키고, 지방관인 군주(軍主)를 파견하였다. 따라서 진흥왕 29년 이전에 고성지방은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었을 것이고, 고성의 남쪽에 위치하는 간성지방은 그보다 먼저 신라에 편입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금의 강원도 지역을 삭주(朔州)와 명주(溟州)로 편제하였다. 이 가운데 명주가 지금의 영동지방을 관할하였으므로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된 달홀주와 수성군(遼城郡)으로 개칭된 수성군은 모두 명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 시기 고성군에는 환가현(獐狎縣)과 편협현(偏嶮縣) 두 속현이 있었는데, 환가현은 본래 고구려의 저수혈현(猪迹穴縣)이었고, 편협현은 본래 고구려의 평진현현(平珍峴縣)이었다가 경덕왕때 편협현으로, 고려 때에는 운암현(雲巖縣)으로

고쳐 이른 것이다. 수성군에는 동산현(童山縣)과 익령현(翼嶺縣)의 두 속현이 있었다. 동산현은 본래 고구려의 승산현(僧山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 동산현으로, 고려조에 들어서는 열산현(烈山縣)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익령현은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으로 경덕왕 때 익령현으로 개칭되어 고려까지 이르게 된다.

후삼국기에 고성지방이 어디에 편제되었는지 사료로써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강원도의 다른지역 특히 지금의 강릉에 해당하는 명주(溟州)가 894년 궁예(弓裔)의 후고구려(後高句麗) 세력권 안에 들었을 때, 고성지방도 후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가 왕건(王建)의 고려(高麗)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으리라 짐작한다.

4. 고려시대

고려 선종14년(995)에 10도제(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고성지방은 삭방도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현종9년(1018) 5도양계(五道兩界) 체제로 지방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고성군은 고성현(高城縣)으로, 수성군은 간성현(杆城縣)으로 개칭되어 동계(東界)에 소속되었다.

동계는 고려 북동쪽 국경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영동지방에 해당하는 영역이었다.

이후 간성현이 간성군(杆城郡)으로 승격되면서 일시적이거나 고성현을 관할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간성과 고성의 통합 편제는 행정구역상의 변화라기보다는 간성군의 지방관이 고성까지 겸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성군으로 통합 편제되었던 간성과 고성(高城)은 공양왕 원년(1389)에 다시 분리 편제되었다.

한편 고려 때 고성군에는 환가현(獐狎縣)과 안창현(安昌縣)의 두 속현이 있었다. 환가현은 본래 신라 때부터 고성군의 속현이었고, 안창현은 원래 막이현(莫伊縣)으로 현종 9년(1018) 고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간성군에는 열산현

(烈山縣) 하나만이 속현으로 남았다. 한편 신라 때 간성군의 영현이었던 익령현(翼嶺縣, 지금의 양양군)에는 현종 9년(1018) 간성군과 별도의 현령이 파견되면서 간성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고성군의 명칭에 새롭게 풍암(豐巖)이 추가되고, 간성군의 별칭으로 수성(水城)이 쓰였음이 확인된다.

5. 조선시대

고성지방은 조선시대 동안에도 줄곧 간성과 고성으로 분리되어 편제되었다. 세종 때 고성현은 고성군으로 승격되었고, 간성군은 그대로 군으로 유지되었다. 또 간성군의 속현은 열산현 하나 고성군의 속현은 안창현 하나만이 확인된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모습을 전하는 『고성읍지(高城邑誌)』에는 고성군의 속현으로 안창현과 함께 환가현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속현은 현재 면으로 편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직후인 석조 37년(1604) 간성군의 근북관(近北關)이 군수와 조방장(助防將)을 겸하도록 하면서 당상관의 무신(武臣)을 선임하였다. 이는 인조가 즉위하던 해인 1623년 곧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무신들의 반발이 있었다. 전쟁 후에 일시적으로나마 간성군에 군사적 성격을 확보하려 했던 정책이었던 것이다.

한편 인조7년(1629) 간성군에서는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강등된 지 10년째가 되는 인조16년(1638)에 다시 간성군으로 회복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 외에는 대체로 고성군과 간성군이 큰 변화를 겪지 않고 행정구역상 두개의 군으로 할 수 있다.

6. 군 · 현대

고종 32년(1895)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8도제가 폐지되

고 23부제(府制)로 지방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강원도는 강릉부(江陵府)와 춘천부(春川府)로 나뉘어졌으며, 고성군과 간성군은 강릉부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6년 다시 13도제(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고성군과 간성군은 다시 강원도 관할이 되었다.

지금까지 고성군과 간성군 2개의 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 지역은 1914년 전국의 부군면(府郡面)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고성군이 간성군에 합병됨으로써 간성군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 때의 간성군은 간성(杆城), 오대(梧堡), 죽왕(竹旺), 고성(高城), 신북(新北), 서(西), 수동(水洞), 토성(土城), 현내(縣內), 등 9개면과 124개 리를 관장하였다. 1919년 간성군이 다시 고성군으로 개칭되었고, 죽왕면과 토성면은 양양군(襄陽郡)으로 편입되었으며, 1935년 오대면은 거진면(巨津面)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고성군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고성군은 고성읍, 장전읍, 거진면, 수동면, 외금강면, 서면, 현내면, 간성면등 2읍 6면이었는데 모두 38도선 이북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북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일부지역이 수복되어 고성군은 간성면, 거진면, 현내면, 수동면 등 4개 면으로 새로이 군을 이루게 되었다.

1963년 양양군에 편입되었던 토성면과 죽왕면을 환수 받아 6개면을 관할하게 되었으나, 수동면은 휴전선이 통과하는 관계로 민간인의 거주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는 5개면을 관장하고 있다. 1973년 고성군은 거진면이 읍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토성면의 사진리와 장천리(獐川里)가 속초시(束草市)로 편입되었고, 1979년 5월 간성면이 간성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래서 현재 고성군은 2개읍 4개면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되어 있다.



청간정(淸澗亭)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동팔경의 하나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淸澗里) 81의1번지에 위치한 청간정은 동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룡정상에 팔각지붕 중충누정(목재와가)의 형식으로 지어진 특이한 형태를 자랑한다.

지난 71년 12월 16일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관동팔경(關東八景)중의 일경으로 보호구역이 13필지 1만6백11㎡에 이른다.

창건년대나 청건자는 알 수 없고 조선조 중종15년(1520년) 이곳 간성(杆城)군수 최청(崔淸)이 중수한 기록으로 보아 정자의 건립은 그 이전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그후 이조 현종3년(1662년) 최태계(崔泰繼)가 중수했다.

명산 설악과 화암사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 하구 동해와 연결된 산록 울창한 송림과 어울어진 기암절벽위에 우뚝 솟아 있는 청간정은 만경창파가 넘실거리는 망망한 동해와 끝없이 이어진 은빛 해변을 바라볼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누각에 오르면 환호와 찬탄을 절로 발한다.



▲ 관동팔경의 하나 청간정

이런 절경과 풍경으로 옛날엔 시인을 울렸던 곳으로 시한 두 구절을 읊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19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소실돼 없어진 후 그대로 방치되다 일제중기(1928년 戊辰)당시 토성면장 김용집의 발기로 현재의 정자를 재건했다.

청간정의 현판은 이조 현종때 송시열(宋時烈)이 좌상(左相)으로 재직시(1668~1672) 금강산(金剛山)에 머물렀다가 이곳에 들러 친필(親筆)로 썼었고 그후 1953년 5월 15일 이승만대통령의 분부로 정자를 보수, 현재의 청간정 현판은 이대통령이 쓴 친필이다.

청간정은 절벽위에 위치해 있어 해풍과 잦은 기후변화로 시설물이 퇴색해 지난 80년 8월 1일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의 동해안 순시때 내려진 보수정화사업 지시에 따라 정자를 완전 해체, 새로 지었으며 이에 따른 주변 정화조경 등 부대사업을 시행, 준공을 보게 되어 명실공히 문화재로

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청간정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아침 해돋이 광경과 달뜨는 저녁의 장면은 마치 뭉게구름이 일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가는 파도는 가히 절경으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통일전망대를 오가는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3년 5월 故 이승만대통령은 청간정에 올라 반도 동쪽에 땅이 끝난 곳.

봉래(蓬萊)가 가까워 선계(仙界)가 여기구나 진시황(秦始皇) 그 옛날에 무슨 락(樂) 구(求) 했으며 한제(漢帝)는 얼마나 선루(仙樓)를 꿈꾸었나 예맥의 청산(靑山)이 이곳에 우뚝솟아, 부상(扶桑)의 붉은 해 난간에 뜬다. 난중(亂中)의 풍월(風月)의 보살핌이 없어. 백구(白驅)와 어옹(漁翁)이 풍월(風月)의 주인(主人)일세. 라는 시조를 남겼으며 또한, 관동팔경가의 둘째 소절에는 三十六峯筆記하고 杆城石景 올라보니 명사여설(明沙如雪) 만경호(萬景湖)에 淸澗亭이 여기로다 라고 노래했다.



천학정(天鶴亭)

동해가 한눈에 보이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교암리(橋岩里) 17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천학정(天鶴亭)은 1931년, 한치웅(韓致鷹)의 발기로 최순문(崔淳文), 김성운(金成運)과 함께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지정 문화재이다.

천학정은 마을 한가운데로 통하는 7번국도에서 항내로 들어가는 입세 바로옆 천학정산(일명 성황산)절벽위에 우뚝서 있는데 그 건축구조의 형태를 보면 정면 2칸, 측면 2칸, 주춧돌이 8개로 둥근기둥으로 되어 있으며 겹처마 팔가지 봉의 단층으로 되어 있다.

천학정에 오르면 동해의 검푸른 바다와 정자에서 바라보는 해안의 경관이 신비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어 이곳처럼 천혜적인 자연의 조화로움은 어디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바위벼랑에 우뚝 세워진 천학정 주변에 5~60년생 소나무와 희귀종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바닷가엔 각아지른듯한 해안절벽과 기암괴석, 그리고 바다에는 크고



▲ 토성면 교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학정

작은 섬(바위)들이 물위로 떠올라 부서지는 하얀파도의 포말이 더욱 아름다워 나그네의 발길을 묶어 놓는다.

남쪽으론 아야진 항구의 등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청간정(淸澗亭)을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으로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을 경계로 흐르는 문암천(文岩川) 하구와 문암2리 능파대(凌波臺)와 죽도가 가까이 있어 경관의 아름다움을 더 해주고 있는데 상하천광(上河天光)으로 “거울 속에 정자가 있다”하여 천학정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여름철 아무리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천학정에 오르면 시

원한 바닷바람과 냉랭한 공기가 감돌아 추움을 느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천학정 내부엔 목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오봉(午峯) 한치용(韓致龍) 지(識)의 소화 5년(昭和五年) 춘삼월(春三月) 상완(上浣)이라 적힌 천학정기(天鶴亭記)가 쓰여져 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정자 아래 바닷가 바위에 자연이 만든 사람(부처상)의 상반신 정좌와 손의 모습이 또렷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천학정은 지난 94년도 군에서 정각의 전체적인 보수작업으로 말끔히 단정돼 많은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송호정(松湖亭)

송지호의 청명함과 망망대해 동해를 한눈에...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오봉리(五峰里) 산(山) 167번지 용소두봉(龍小斗峰)에 위치하고 있는 송호정(松湖亭)은 1959년 10월3일 당시의 최창길(崔昌吉) 면장이 하 이원섭(李元燮)창건 기성회장 지방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건립되었다.

송호정은 그 주변이 울창한 송림과 송지호의 청명한 호수와 함께 어우러져 동해의 푸른 망망대해가 한눈에 들어오고 물빛이 청명한 호수에는 많은 어족과 갯조개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겨울철새인 천연기념물 201호 고니와 청둥오리등 이름 모를 철새의 도래지로서 장관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규모와 건축양식의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형식의 정자로서 초석은 네모난 화강석의 상부(H:18cm)4각형으로 그냥 두었다.

초석의 상부에는 우물마루를 깔아 정자 바닥을 완성하였고 마루의 중앙부분 아래에 같은 모양의 초석을 두어 마루를 받치게 했다.

마루에서 24cm 높이에 15×8cm의 각재를 사방으로 둘러 난간 구실을 하고 있으며 천정의 상부는 우물정자 천정+빔천정으로 되어 있고 판자로 내부천정을 마감하였다.

네 귀에는 주두를 얹어 귀포를 두었고 각 중간기둥과의 사이는 들보에 의해 연결되어 천정 아래에서 “+”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과 간 사이에는 화반소로가 도리위에 얹혀 있는 형식으로 축조 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풍상으로 일부가 노후되어 지난 94년도 군(郡)에서 문화재 정비사업의 하나로 노후된 정자를 해체 복원하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천혜의 경관과 자태를 뽐냈으나 96년도 4월 23~24일 이틀간 토성, 죽왕면 일대의 산불의 대화란으로 불길을 막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곳의 천년 송림과 더불어 송호정이 잿더미로 불에 타 사라져 버렸다. 그후 97년도 5월 군비를 들여 복원하여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 송지호에 위치하고 있는 송호정 전경





고성 선유담(高城 仙遊潭)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사선(四仙)들이
즐거 찾던 곳

고성군 죽왕면(竹旺面) 공현진리(公峴津里) 산108-1번지 오음산(五音山)자락 7번국도 북·서쪽 50여m에 위치하고 있는 선유담(仙遊潭)은 옛 선비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역사적인 내력이 면면히 내려오고 있다.

전설로는 신라시대때 주변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영랑(永郎), 술랑(洙郎), 안상(安詳), 남석행(南石行)등 사선(四仙)들이 이곳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며 놀았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선유담을 노래한 한시에서는 동헌(東軒)에서 십리(十里)쯤 되는 곳에 있는 산(山) 주변에 에워쌓인 산기슭에 담(潭)이 있으니 일컬어 “선유담”이라 했다. 자그마한 산세(山勢)가 유난하게 못에 반쯤내민 멧부리 주변에는 노송(老松)이 많다고 읊었다.

옛적에 정자(亭子) “가학정”(駕鶴亭)는 지금은 빈터만이 남아있다. 봄이면 바위마다 철쭉꽃 만발하고 여름이면 연못에 뜬 단채화(專菜花) 또한 가득하도다라고 이곳 선유담

의 절경(絶景)을 그렸고 고려후기의 학자인 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를 지낸 여영군 안축(興寧君安軸)(서기 1282~1348)은 이곳을 노래한 한시에서 “못위에 서린 벗 만난 것 같도다 하염없이 나를 닮아여 바쁘게 돌아서서 거듭와서 보지못할까 한(恨)스럽도다” 하고 하였으며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신비로움에 감탄하여 “가학정” 앞에 있는 천연반석위에 친필로 쓴 선유담이란 한문으로 글씨가 색여져 있는데 글씨의 획이 직경 30m 가량의 크기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또 이 반석위에는 가학정(駕鶴亭)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는 당시의 간성군수였던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세워 놓았으나 지금은 세월의 영겁과 함께 비바람에 폐허가 되어 그 자리에는 “선유담”이란 글씨만 남아있어 옛 선인들의 풍유를 즐겼던 멋을 찾아볼 수 있다.

선유담이 우암의 친필로 확인됨에 따라 고성군은 문화재 자료 35호로 지정된 해강 김규진(金圭鎭)이 쓴 건봉사 불이문(不二門), 우암(尤庵)의 청간정(淸澗亭)현필과 함께 귀중한 문화재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 죽왕면 공현진 선유담의 석물 흔적 모습



건봉사(乾鳳寺)

유서깊은 호국통일의 도장(道場)

고성군 간성읍(杆城邑) 교동리(校洞里)에서 해상리를 지나 서북쪽 약3.5km지점에 있는 건봉사(乾鳳寺)는 거진읍(巨津邑) 냉천리(冷泉里) 36번지에 위치한 금강산(金剛山) 가장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51호로 1982년 11월 3일 지정되었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서기520년)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창건했다. 그후 발징화상(發徵和尚)이 원각사(圓覺寺)를 중건했으며 또한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서봉사(西鳳寺)로 중수했다.

그리고 고려 공민왕(恭愍王)7년(서기1358년) 나옹대사(懶翁大師)가 절이름을 건봉사로 고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건봉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 유명 승려들의 수도장으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사찰내 건물들의 규모가 7백76칸이나되 웅장함을 자랑하였고, 전국 4대사찰의 하나로서 승려만도 7백여 명에 이르러 선교양종(禪敎兩宗)의大本산으로 해인사와 쌍벽을 이루었던 대사찰로서 지금의

설악산 신흥사와 낙산사가 모두 건봉사 슬하에 있던 말사(末寺)였다.

또한 만해 한용운(韓龍雲)이 건봉사에서 승려 생활을 했으며 건봉사에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세워 일제하(日帝下)의 민족사상 계몽교육의 구심체가 되어 호국불교의 도량으로서 특히 「조선불교 유신론」으로 한국(韓國)불교계의 큰 변혁을 시도하고 3·1운동 33인의 민족대표로서, 그리고 「님의 침묵」의 시인으로 추앙 받은 만해 한용운이 근세의 「건봉사지(乾鳳寺誌)」를 저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건봉사는 봉명학교 운영과 함께 항일 민족운동의 근거지였으며 선조때는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승병을 모집 봉기한 사찰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건봉사는 6·25동란으로 그 웅장하던 경내의 건물들이

▼ 거진읍 냉천리에 위치한 건봉사 전경



모두 회진되고 유일하게 불이문(不二門)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

건봉사는 수복이후 민통선내에 있어 세인들의 출입이 금지되다가 지난 1989년도에 국방부로부터 민통선 해제가 승인되어 신도들은 물론 전국의 경향각지에서 이곳을 찾아 자유로이 출입을 하고 있다.

또한 건봉사에서 1977년도 「건봉사본말사적(乾鳳寺本末事蹟)」이 발견된 바 있고 1990년도 현지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건봉사의 연혁은 물론, 유물,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건봉사는 1천 5백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깊은 사찰로서 조선 선조38년(1605년)에 사명대사가 부처님 진신처아사리 12과를 봉안한 곳이기도 한다.

건봉사는 정부의 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사업으로 지난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봉사유구 정비가 시작되어 상별당지, 산신각(2.7평), 꽃간지, 팔상전지(八相殿址), 보제루 및 진영각, 극락전지, 대웅전1동(35.57평), 염불만일원(91.02평), 명부전(14평), 육화당(18평), 봉서루, 대지전, 사성전, 어실각, 대석단 복원 등 13억5천여만 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옛날의 그 모습들을 똑같이 재현하여 천혜의 명승지인 금강과 설악을 배경으로 역사 사적인 신라 화랑도의 국토순례장으로 고려때에는 사대부의 문예수련장으로 국난극복의 발상지로 그 때의 위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불사(佛事)가 진행되고 있다.



건봉사 불이문 (乾鳳寺 不二門)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가르침의 관문

고성군의 중심지인 간성에서 서북쪽으로 건봉사(乾鳳寺)까지의 거리는 약9km의 거리다.

산간계곡의 굽이굽이한 옆길을 따라 산능선을 넘으면 넓은 계곡이 나타난다.

건봉사지는 거진읍(巨津邑) 냉천리(冷泉里) 36-1번지에 위치한 불교사찰의 대가람으로 옛날 전국4대 사찰의 하나로 그 웅장함과 위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었으나 6·25동란으로 건물들이 모두 화진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불이문(不二門)만 건봉사지 입구에 남아 있다. “불이문”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1984년 6월 2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1920년에 건립한 원통형으로 높이가 1.61m의 4개의 돌기둥(石柱)위에 나무 기둥을 세워 지은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집이다.

건물의 위쪽 중앙에는 당대의 명필 해강(海剛) 선생(先生)이 썼다는 불이문(不二門) 현판이 오랜 풍상을 이겨내며 현재까지 걸려 있다.

“불이문”이란 뜻은 상대적 차별적인 이기심을 모두 초월하고 마음을 비워 절대적 평등적 진리를 나타내는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의미한다고 한다. 건봉사(乾鳳寺)는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년)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후 발징화상(發徵和尚)이 원각사(圓覺寺)를 중건하였고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서봉사(西鳳寺)를 중수했다.

고려 공민왕 7년(서기 1358년) 나옹대사(懶翁大師)가 서봉사를 중수하고 절이름을 건봉사로 고쳤다 한다.

조선시대 세조가 들렀다가 왕실 원당(願堂)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선조때는 임진왜란을 맞아 사명대사(泗溟大師)가 6천여명의 승병을 모집, 봉기한 사찰로 왜적을 물리쳤다.

건봉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과 함께 7백여 명 승려들의 수도 정진처였으며, 7백 76칸의 대가람의 건봉사는 이제 하나둘씩 옛고증자료를 토대로 서서히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건봉사는 옛 민족사상 계몽교육의 구심체로서 곳곳하게 남아 있는 불이문과 함께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불자들의 영원한 불교의 도량으로서, 또한 통일을 기원하는 전통적 역사적인 안보 관광지로서의 그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건봉사 경내 입구에 있는 불이문 ▼





금강산 건봉사 능파교 (金剛山 乾鳳寺 凌波橋)

미적 감각으로 건봉사의 웅장함을 대변

고성군(高城郡) 거진읍(巨津邑) 냉천리(冷泉里) 3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기념물 제51호인 건봉사지(乾鳳寺址)의 건봉사는 전국4대 사찰의 하나로 월정사와 더불어 전국31개 사찰의 본산이었으며 승려수만 7백여명에 헤아리는 큰 사찰이었다.

신라 법흥왕 7년(520년)에 열산현(烈山縣) 금강산(金剛山) 남(南)쪽, 서봉사(西鳳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아도화상이 건방(乾方)에 고개가 있고 큰 돌이 봉황이 나는 모양 같아서 건(乾)과 봉(鳳)을 합쳐 건봉사(乾鳳寺)라 했다고 한다.

건봉사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천연의 자태로 남아 있는 석교(石橋)인 능파교(凌波橋)는 4개의 석교중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그 규모도 가장 큰데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대웅전 바로앞의 교량이기도 한다. 능파교(凌波橋) 신창기



▲ 건봉사 대웅전 앞의 능파교

(新創記)에 의하면 1708년 조선숙종(朝鮮肅宗) 24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교의 규모는 폭3m, 길이14m 중앙부의 높이는 5.4m나 된다.

그리고 능파교의 형태는 중앙에 지름 7.8m, 높이 4m의 구름다리(아치형)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에는 장대석으로 날개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예(무지개형)의 축조 수법은 바닥에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29개의 홍예를 올렸는데 좌우에 14개씩 배치되어 있다.

홍예의 하단에는 길이 267cm, 높이 49cm, 길이 30m, 높이 50cm의 장대석 2매의 장대석을 사용했다.

또한 능파교의 신창비는 비좌, 비신, 이수를 구비한 석비로서 대좌는 장방형으로 105cm×63cm×28cm의 크기로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비신은 140cm×62cm×

28cm의 크기로 전면 상단에는 자경 13cm의 호서(篆書)체로 능파교기(凌波橋記)라 쓰여져 있다.

그면비로 비문의 자경은 3cm이고 이수는 90cm×100cm×48cm로 전면에 2마리의 용이 양각되어 있으며 배면에는 운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정상에는 보주가 있으며 비석전체의 높이는 2.68m이다.

이 밖에도 건봉사지에는 불이문(不二門)으로부터 동남쪽 1백 50m 지점에 제1석교가 있고, 또한 건봉사 대형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제2석교가 있는데 현재는 상면(상판)이 훼손되어 6·25당시 군인들이 콘크리트로 다시 건설하였으며, 마지막 제3교는 건봉사와의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한 석교로서 사면에 목교(木橋)가 가설되어 있다. 건봉사지에는 이와같은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데 1990년도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건봉사적지의 연혁과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1995년 강릉대학교 박물관 전문교수들에 의해 문화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불교유적(佛敎遺蹟) 보존과 발굴, 관리사업에 착수하여 불교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건봉사(乾鳳寺) 석가모니 진신 치아사리

선조 38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찾아온 보물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금강산(金剛山)을 접하고 있는 건봉사(乾鳳寺)는 고성군(高城郡) 거진읍(巨津邑) 냉천리(冷泉里) 산3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4대 사찰의 하나였으며 강원도엔 금강산의 유점사(楡岾寺), 월정사가 있다.

특히 유점사는 산내말사(山內末寺)와 산외말사(山外末寺)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의 사찰까지 말사(末寺)로 두고있었다.

지금의 인제군 백담사와 양구의 심곡사, 홍천 수타사도 건봉사의 말사였다.

이곳에 있는 사리 및 사리탑은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산서 청량산 속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세존의 진신사리와 금관가사 구엽경 등을 나누어 가지고 환국하여 일부는 오대산 월정사와 통도사에 봉안하였는데 진신사리12과는 임진왜란때 왜병이 통도사의 사리를 약탈해 간 것을 선



석가모니 사리탑



석가모니 진신 치아사리

조 38년에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일본에 사행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건봉사지(강원도 기념물 51호)사리탑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86년도 6월 10일경에 문화재 전문 도굴단에 의해 도난당했던 것을 다

시 찾게 되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보관했던 것을 소유권 문제로 법정시비 끝에 불자들과 지역주민의 열화같은 애향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건봉사에 봉안하게 되었다.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는 전세계에 15과 뿐인데 스리랑카에 3과가 있고 건봉사에 8과만이 봉안되어 있으며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리 만치 희귀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 새로지은 “적멸보궁” 뒤편 오른쪽 앞에 건립되어 있는 치아사리탑은 천고의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방현의 지대석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를 구분한 팔각원당형의 부도이다.

기단부는 팔각형으로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데 하대석에는 복련, 상대석에는 양련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탑신은 높이 53cm의 구형인데 표면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낙수면과 상면이 별도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한개의 돌로 조각된 상륜분은 연극문대, 편구형부재, 상단에 여의두문인, 하단에 화문이 새겨진 부재가 있고 사리탑의 전체 높이는 1.6m이다.



건봉사 십바라밀 석주 (十波羅密石柱)

대승불교의 기본수행법을 표현한 사찰문화재

고성군 거진읍(巨津邑) 냉천리(冷泉里)에 소재하고 있는 건봉사(乾鳳寺)는 1982년 11월 3일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됐다.

전국4대사찰의 하나이자 호국대가람 금강산 건봉사 경내에 있는 십바라밀(十波羅密)석주(石柱)2기가 대승불교의 기본수행법을 표현하고 시각적인 교육효과를 지닌 국내에선 보기드문 중요한 사찰문화재로 밝혀졌다.

건봉사 대웅전 앞 능파교를 건너면 대석단이 보이고 중앙통로(中央通路) 좌우(左右)로 높이 1m58cm의 사각형(四角形) 석주 2기가 우뚝 서있다.

이중 좌측석주 전면엔 원월(圓月), 신날, 구름, 좌우쌍정(左右雙晶), 고리두뢰의 형을 취한 것이 있으며 우측석주엔 반월(半月), 가위, 금강저(金剛杵), 전후쌍정(前後雙晶), 성중원월(星中圓月)형이 음각되어 있다.



중요 불교문화재 십바라밀 석주 2기 ▲

이와 같은 석주의 십바라밀 도형(圖形)에는 대승불교의 기본수행법인 보시(보施), 지계(持戒), 지혜(智慧)의 바라밀에다 이 여섯가지를 보조하는 방편(方便), 원(願), 력(力), 지(知)의 4바라밀을 첨가해 구성한 것으로 십바라밀도는 이들 열가지 수행의 방법을 상징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로 그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간직되어 있다.

신라 법흥왕7년(서기520년)에 세워졌다는 건봉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 봉기한 국난극복의 유적지이며 일제때에는 관동북부지방의 대표적 민족교육기관인 봉명학교가 설립돼 민족사상 계몽교육의 구심이 되었던 명찰이다.

건봉사 십바리밀 석주에 음각된 내용들은 재물과 진리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3종의 보시를 베풀고 보름달 같은 광명이 두루 비치고, 계율을 지켜 그릇됨과 악한 것을 방지하고 선행을 쌓아 어둠을 감하고 밝음을 더욱 자라게 하며 또한, 욕됨을 참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깊은 삼매(三昧)을 이루게 되면 모든 열기와 번뇌가 소멸되어 청량을 얻게 된다는 선정바라밀을 나태내고 있다.

지혜로써 피안(彼岸)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견고함과 예리함과 밝음의 세가지 특성을 함께 갖춘 것이며, 두 우물을 나누어 모든 중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듯이 중생을 교화하여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며 어떤 신분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불교에 귀의하여 해탈하는 것, 수행할 때 힘을 투입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력(力)바라밀 그리고 삼계(三戒)와 삼세(三世)의 세간적인 지식을 세 개의 조그마한 원으로 표시하고 불교의 정지(正智)를 바깥의 원으로 표현하여 곧 변지와 정지를 함께 갖추어서 지혜를 올바르게 성취하는 것을 나타낸 불도정진에 거울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십바라밀 석주가 건봉사지에만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거진읍 초계리에 거주 작고한 이백규(李白圭, 85세, 前문화원이사)옹이 최근 관내 중요불교문화재 자료수집을 위해 국립도서관에서 옛 문헌을 찾아 열람하다 발견하게 됐다.



건봉사(乾鳳寺) 사명대사 기적비 (泗溟大師 記蹟碑)

호국 영령의 표상(護國 英靈의 票象)

고성군(高城郡) 거진읍(巨津邑) 냉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봉사 사명 대사 기적비는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과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및 건봉사본말사적(乾鳳寺本末事蹟)에 소재되어 있으며 건봉사에 사명대사 비석이 있음이 증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경내를 조사한 결과 파괴되어 매몰되어 있는 소재를 파악했다.(1990년 7월)

그후 많은 시간이 흘러 건봉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의 토사를 일부제거하고 대사의 비석을 확인했다. 찾아진 것은 비좌, 비신의 일부 및 옥개석인데, 토사의 양이 많고 일부만 수습 비신은 난파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같은 만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추측된다하며 1911~1928년에 간행되었던 사적사료기록을 감안할 때 3개의 책에 비문에 대한 동일함에 비추어볼때 사명대사비는 아마도 1928년까지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 건봉사 경내에 있는 사명대사 기적비 잔해

있다.

따라서 “사명대사” 기적비의 파괴는 이후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습된 비편을 분석해 볼때 비석은 3 조각으로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조사 확인된 “사명대사비”의 현황은 비좌는 130cm×80cm 높이 24cm로 상면에 114cm×64cm, 높이 16cm의 괴임대를 조출하고 있다. 괴임대의 상면에는 비신을 꼽기 위한 80cm×34cm×7cm의 장방형공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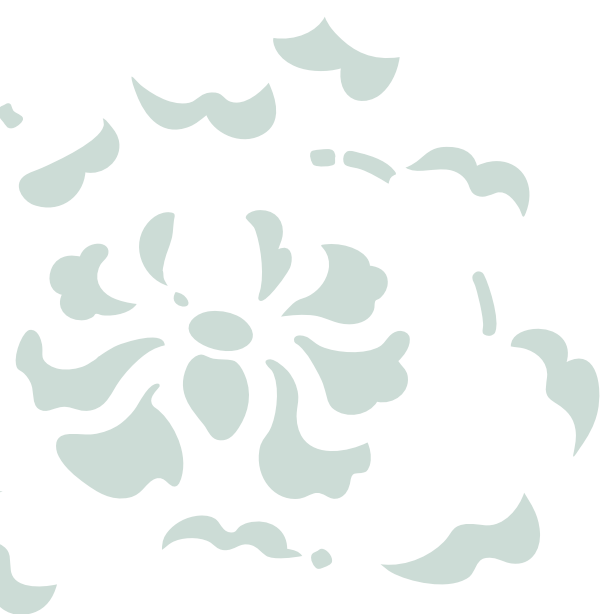
비문의 일부의 내용을 볼때 이 비석이 1680년(朝鮮正祖 24年)에 건립된 것임을 알수 있으며 비문은 자경 2.8cm의 크기로 새겨져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비편은 비신의 하단부로 80cm×45cm×32.7cm의 크기이며 앞의 비편과 같이 3면에 비문이 있어 한행의 끝을 확인되어 있다.

이수는 뒤집어진 상태로 있는데 폭이 138cm, 너비 57.5cm, 높이 80cm이다. 하면에는 비신이 올리기 위한 80cm×33cm, 깊이 4cm의 장방형 홈이 있다.

이와같이 건봉사의 사명대사비는 비록 많이 파괴는 되어 있지만 문헌자료와 현상태를 볼때 비신은 폭 80cm, 너비 3cm, 높이 약190cm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높이가 현재 파악된 비편의 비좌와 이수를 포함할 때 294cm였던 것으로 보고있다.

불교유적(佛敎遺蹟)의 발굴 및 복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 햇빛을 보게 되어 호국 유적의 진면목을 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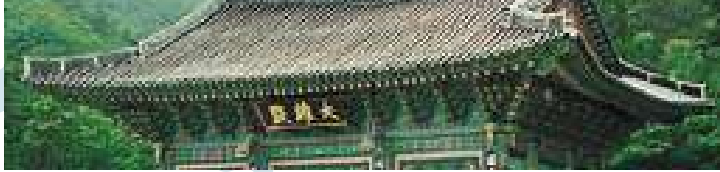


▲ 화암사 대웅전 전경

금강산 화암사 (金剛山 禾巖寺)

설악과 신선봉 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사찰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신평리(新坪里)산136-11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화암사(禾巖寺)는 고성군의 관문인 용촌리 7번국도에서 「하일라비치」를 지나기전 서쪽으로 정확하게 10.7km 설악산 기슭 신선봉 아래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화암사는 금강산(金剛山) 최남단(最南端)의 사찰로서 지금부터 약1225년전 (서기869년) 신라 36대 혜공왕(惠恭王)5년에 신라의 신승(神僧 神通된승) 진표(眞表)율사(律師 十法)를 갖추고, 계율을 잘 지키는 고승을 말함)가 설악산 북쪽인 천후산(天吼山)에 있는 미시파령(彌矢坡嶺)아래 수암(水岩) 그 좌측기슭에 창건하고 화암사(華巖寺)라 이름하였다 한다.

그후 화암사의 기록(記錄)에 의하면 창건이후 5차례나 화재(火災)를 입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특히 1860년(庚申, 哲宗11年) 음력 윤3월1일 자연발생적인 화재가 일어나 흡곡(강원도 맨북쪽 원산부근)에서부터 강릉, 정선 등을 불태울때 화암사도 불에 타버려 법당과 승방을 엿터 아래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이에 소실때 마다 중건하고 지금으로부터 80여 년전(壬子年 1912年)에 화암사(華巖寺)를 화암사(禾岩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화암사는 1988년 6월 22일 전통사찰 제27호로 지정되었으며 90년 8월 7일 「설법전1동」이 강원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제114호(85,9,7)로 지정(指定)되었으며 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토성면 인흥리 산32-22번지 일대 50여만평)개최 당시 국내외인(國內外人) 종교(宗教)의식 행사장으로 지정되면서 대웅전(大雄殿) 등 11동의 불사가 이루어 지므로써 사찰로서 진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93년 12월까지 중건된 건물현황은 금강산 화암사 일주문, 대웅전(35평), 삼성각(三聖閣) 6평, 명부전(冥府殿)

55평, 설법전 55평, 누각 16평, 요사채 58평, 종각 16평 등이며 부대건물로 식당 21평, 매점 14평, 화장실 14평 등의 규모로 시설되었다.

화암사는 일주문을 조금 지나 왼쪽에 부도군 14기가 철책으로 잘 보존 되어 있고 대웅전을 지나 한참 올라가면 삼성각 꼭대기에 2개의 사리탑이 세워져 있다.

또한 특이할만한 것은 사찰입구에 돌로 만든 무지개다리(虹石橋)를 지나 계단으로 오르면 주변에 웅장한 나무들과 어우러져 대웅전이 말끔하게 단청되어 있으며 우측 산자락에 인도가 원산지라는 2백여 년 생의 보리수(菩提樹)나무<석가가 그 아래 앉아서 도(道)를 깨달아 성도(成道)했다는 성수(聖樹)로 전해오고 있음>가 있으며 좌측에는 범종이 있는 종각이 있는데 범종은 주지 김문석(金門碩)스님과 문창하(文昌廈) 신도회장(信徒會長)외 30여 명의 시주와 성금으로 불기(佛紀) 2539년(乙亥年) 범종사(梵鍾社)에서 주조(鑄造)하였다고 양각되어 있다.

그리고 구름다리를 건너 우측에 깨끗하며 시원한 맛의 물이라는 “감로수”가 놓여 있는데 “한모금의 청정수로 갈증을 가시웁고 원컨대 위업의 깨달음을 얻으소서”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으며 불기 2537년 4월에 설치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밖에도 화암사 앞 50m 지점에 수(秀 또는穗로 한자를 씀)바위가 웅장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유래를 보면 바위 정상에 큰웅덩이(우물)가 있었는데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올때 그곳에서 물을 떠서 바위에 뿌리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다.

화암사는 최근들어 미시령을 경유, 세계잼버리장을 찾는 관광객과 가까이 인접해 있고 도로가 좋아 산사를 찾는 불교 신도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날로 발길이 이어져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건봉사(乾鳳寺)

극락암(極樂庵)

고려 혜종때 창건된 불사, 불자들의 도량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간성시내에서 북천교를 지나 대대리(大垓里) 교통중심지인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약 3km 올라 교동리(校洞里) 마을 중심지역에서 북쪽으로 500m 고갯길을 넘으면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아담한 극락암(極樂庵)이 나타난다. 대한불교조계종3교구 건봉사의 속암(屬庵)이기도 한 극락암(주지 함덕현 66세)은 간성읍 교동리산 81번지 1천여평의 사찰내에 대웅전, 삼성각(三聖閣), 큰법당, 요사채등의 건물이 있으며 주지를 비롯 2명의 여승만이 산사를 지키고 있다.

서기 945년 고려혜종(高麗惠宗) 2년(乙巳)에 창건하였고 1875년 이조고종(李朝高宗) 15년(戊寅) 화재로 소실, 고종19년(1882년) 개축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때 다시 소실되어 근년에 다시 중창되었다.

그후 1956년(丙申)에 박법선(朴法善)주지가 간성읍 광평리에 8간을 신축했다가 1962년에 지금의 교동리로 이전

하였고 1990년(庚午)7월 덕현(德玄)주지가 대웅전(大雄殿), 요사채등을 신축하였다.

대웅전은 전면에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화강석 물갈이 세겹대 기단 쌓기를 하였다.

연화무늬 둥근 주초석을 두고 원기둥의 정면3칸 측면2칸 겹처마 팔작기와지붕 형식으로된 법당이다.

정면과 좌측에서는 화강석 돌계단이 있고 정면 출입계단의 좌우측에는 석등이 세워져 있다.

또한 삼성각은 같은 둥근 자연석을 세겹대로 쌓아 기단을 형성하고 화강석을 멧돌 모양으로 둥글게 한후 원기둥을 세웠다.

극락암은 세멘트모르타르 마감의 기단에 화강석 초석 정부만 둥글게 다듬은 주초를 두고 원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 건봉사 극락암 대웅전 전경



창호는 3짝 세살 여닫이 세살문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바닥은 시멘트 모르타르위 비닐 장판지로 마감, 천정은 우물천정 빗천정으로 빗천정 부분만 단청을 입혔다. 이와 같이 극락암은 암자라기 보다 불자들의 성원으로 날로 사찰의 면모를 갖추어져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현재 2백여명의 신도회원을 확보하고 불도의 도량으로 애호를 받고 있는 산사로 빛을 발하고 있다.





간성 향교(杆城 鄉校)

전통적 윤리교육의 산실(産室)

고성군청 소재지인 간성시내에서 북천교를 지나 교통의 중심지인 거진읍 대대리(巨津邑 大垓里) 검문소(삼거리)에서 진부령쪽으로 약1.5km지점인 간성읍(杆城邑) 교동리(校洞里) 664번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간성향교(杆城 鄉校)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104호로 1985년 1월 17일 지정되었다.

간성향교는 세종2년에 창건되었다하며 현재의 고성군은 1919년전까지는 간성군이었던 곳으로서 동국여지편람에도 고성과 간성은 별개의 고을로 되어있다.

고성향교는 지금의 휴전선 이북인 북한고성에 있으며 현재 이곳 고성군에 있는 향교는 본래의 간성향교이다.

간성향교는 1420년 간성군내(杆城郡內) 성북(城北) 용연동(杆城邑 上里, 일명 쇠통골)에 처음 창건(創建)되었고 그뒤에 거진읍 대대리 방축동(골)으로 이전, 또다시 1545년 해상방(海上坊) 척축하동(간성읍 교동리, 속칭 한밭골)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당시의 간성향교 규모는 대성전(大成殿)10칸, 동서



간성읍 교동리에 위치한 간성향교 전경 ▲

당6칸(間)이었다.

그뒤 군수(郡守) 민종수(閔鍾洙)가 대성전 앞에 명륜당(明倫堂)8칸을 재건하였다.

간성향교 대성전의 위패는 임진왜란과 6.25동란중에 다른 곳에 이안하여 보존하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1950년 6.25동란으로 교궁이 모두 소실된 것을 54~56년(2년간)에 걸쳐 고성군과 뜻있는 유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대성전, 동서재, 대성문을 중건하였다.

그후 오랜세월의 풍상에 방치되어 폐허 상태인 것을 정부의 문화창달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지원된 지난 93년부터 2년간 고성군이 총사업비 3억

여 원을 투자, 간성향교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동서재 해체 복원, 명륜당, 내삼문, 협문2동, 동정문, 동래문 등을 보수 및 신축공사여 새로운 단청공사로 말끔하게 단장하였으며 또한 화장실, 축대 및 담장 1백60m도 쌓아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동해북부지역의 최대의 향교로서 옛 가람의 진면목을 되찾게 되어 4만 고성군민들에게 유교의 전통적인 윤리관을 고취시키게 돼 유서깊은 간성향교가 유학의 전당으로 유림들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유교사상의 전통적인 윤리교육의 도량으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화진포(花津浦)

동해안 최북단의 최대 자연호수인 화진포(花津浦)는 고성군 거진읍(巨津邑) 화포리(花浦里 일명 찻골)와 원당리(源塘里), 현내면(縣內面) 죽정리(竹亭里), 산학리(山鶴里), 초도리(草島里) 등 주변마을에 호수가 둘러 쌓여 있다.

고성군청 소재지인 간성(杆城) 시내에서 7번국도를 따라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 14.4km지점, 동북부 해안(海岸)에 위치하고 있는 화진포는 8·15해방직후에 그 구역이 북한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6·25사변이후 실지 회복되어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대한민국 행정권내에 편입됐다.

화진포는 대부분 산지에 둘러싸여 있고 해안에 가까이 접하고있어 화진팔경(花津八景)이라 하여 竹亭, 暮煙, 長坪, 落雁, 加平, 夜鍾, 歸帆 등의 유래가 있으며 호수 둘레가 약 16km의 대호수(大湖水)로 수면이 정광윤(情廣潤)하고 포구(浦口)의 기암괴석(寄岩怪石)과 호수 앞 바닷가에 금구도(金龜島 일명 草島)의 백조군(白鳥群)이 유자(遊子)의 흥취(興趣)를 돋구는 가경(佳景)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화진포는 지난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일대를 옛적에 가평대(加平臺)라는 지명으로도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은 자연풍경이 수려할뿐만 아니라 72만평의 넓은 면적의 광활한 호수주변에 울창한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 쌓여 있고, 포구(해안)의 아름다움이 신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호수 앞 해안에는 수심이 얇고 해저가 청아하여 주옥같은 백사장이 명사십리(明沙十里)를 이루고 수천년 동안 조개 껍질과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해변의 모래는 그 색깔이 하얗기로 유명하고 모나즈(Monaz) 성분이 많아 모래를 밟으면 감촉이 부드럽고 개미 등 곤충류(昆蟲類)가 살지 않으며 동해의 맑은 해수와 화진포의 담수(鹽淡水)가 교차하여 호수에는 연어, 송어, 도미, 사여리 등 갖가지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4계절 내내 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에는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 등 갖가지 철새들의 도래지로서 통일전망대는 오가는 관광객들과 묵객들의 시선을 끌고도 남음이 있다. 화진포 주변과 해안 산마루 조망이 좋은곳에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李承晩) 전대통령의 휴양지로 별장이 남아 있으며 호수주변에 선사시대의 고인돌 10여기의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기도 하다.

화진포는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호수의 이름은 원래

▼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화진포



열산호(烈山湖)로 불리워 졌었으나 화진포 건너 마을에 열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화진포 물속에 옛날의 열산현(烈山縣)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해 큰비가 내려서 마을이 송두리째 물에 떠내려가고 마을이 있던 곳이 차차 물에 잠기기 시작하여 호수가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화진포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풀려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진포 개발 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총29개사업(공공부문 17개, 민자부문 12개)을 투자하여 통일전망대와 설악산, 알프스스키장을 연결하는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관광지로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 관광 명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화진포 호수주변에 군락이룬 청동기 유적

동해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군은 태백산맥과 동해를 끼고 뻗어내린 크고 작은 많은 구릉들이 곳곳에 있어 하천 유역의 해안선 부근에는 석호(潟湖)라는 호수(湖水)들이 발달한 특수한 지형조건을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중요선사 유적인 고인돌이 주로 이들 하천이나 호수주변의 충적평야 지대인 모래언덕이나 낮은 구릉지대에 대부분 군락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고인돌 분포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정식 발굴조사는 아직 없었으나 지표조사는 화진포(花津浦) 주변 일대에서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최근 1994년 10월 백흥기 강릉대학교 박물관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조사단에 의하여 실시됐다.

조사 결과 고성지역엔 청동기시대 유적24개소중 고인돌 유적이 20여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된 점이 특이하며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2개소, 고분유적은 12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고인돌 군(群)중 대표적인 8호 고인돌은 현내면 죽정1리 7번국도에서(2km지점)화진포로 가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다 군(軍)위병초소를 지나 좌측언덕 이승만 별장과 다리를



화진포의 성 별장 진입로에 있는 고인돌 ▲

건너 화진포콘도 앞 솔밭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방식 지석묘로 잘 알려진 장평리 지석묘가 이것이다.

이 지석묘(고인돌)의 덮개돌은 5각형으로 동남쪽 일부가 파손 되었으나 덮개돌의 길이는 장축 260cm, 폭 200cm, 두께 40cm이다.

석실의 장축인 동벽과 서벽, 그리고 단축인 남벽은 각각 1매의 판석으로 되어있고 북벽은 소실되었다.

남벽의 지석은 1m정도 남아 있고 북벽의 지석은 소실되었는데 석실의 크기는 장축 190cm×폭113cm이며 바닥에서 덮개돌까지의 높이는 약50cm정도이다.

그리고 석실동쪽의 높이는 15cm밖에 되지 않고 고인돌 동쪽바로 옆에 있는 나무뿌리에 돌이 박혀있는 상태로 지상

에 노출되어 있는 점, 고인돌이 모래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석실 주변의 돌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지석묘는 묘실이 지하에 있다가 모래가 없어지면서 석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북방식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화진포 내에 있는 8호 고인돌은 장평리 유적으로 알려진바 있으나 현 행정지도상 거진읍 화포리에 속하므로 화포리 유적으로 분리, 문화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완전개방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며, 선사 고분 유적(先史, 古墳遺蹟)들이 햇빛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송지호(松池湖)

처녀의 수줍음인양 맑고 청아한 자태

「봄이오면 꼭 온다던 그 사람은 왜 안올까 동해바다 푸른 물결 그리운 내님이여, 송지호 찾아온 백로야 너도 떠나냐, 이 마음 전해다오 사랑하고 있다고」라고 이어지는 길옥윤 작곡·작사 송지호(일명, 사랑하고 있다고)연가로 널리 알려진 동해안 북단의 석호로 고성군 죽왕면(竹旺面), 오호리(五湖里)와 오봉리(五峰里), 인정리 마을에 둘러싸여 있는 송지호(松池湖)는 호수 둘레가 4km에 달하며 약20여만평의 넓은 대자연 호수로 죽왕면 소재지(오호리)에서 0.5km 떨어진 7번 국도와 해변에 인접,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송지호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1977년 10월 15일 송지호 일대 주변, 73만5천9백52평을 국민관광지로 정하고 84년 2월 1일 교통부장관의 부분적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관광개발이 이뤄진 것이 없어 태고의 적막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지호는 주변에 울창한 송림과 함께 44.5ha의 호수가 청명하고 담수가 바닷물과 교차되고 수심이 일정하고 사계

절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송지호는 염담호수로 바다와 물길이 이어져 도미와 전어 같은 바다 고기와 잉어, 숭어, 게 등은 물론, 유명한 재첩(일명 갯조개)이 많이 생산되어 전국의 조개 수집상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송지호 갯조개는 만병통치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간경화 환자들에게 특효가 있다 하여 명품으로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송지호의 특색은 동해 북부선 7번국도를 따라 통일전망대를 오가는 길목으로 겨울철엔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와 청둥오리 등 갯가지 철새들이 찾아드는 도래지로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이다.

송지호에는 일명 용소두봉(龍小斗峰)오봉리 임야167번지 호수변 산언덕에 송호정(松湖亭)이 있는데 1959년 10월 3일 당시의 창건기성회장 이원섭(李元燮)과 최창길(崔昌吉)면장 등 지방독지가 및 유지들의 모금으로 건립하였고 건축구조는 둥근나무기둥 4각지붕 한와로 호수와 바다

▼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진 송지호



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59년에 송호정을 비지정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9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의거 9천여만원을 들여 난간해체복원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96년 4월 23일 죽왕면 마좌리 죽변산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토성, 죽왕면 일대의 임야가 화마로 휩싸여 그 울창하고 청아하던 송림이 거의 황폐화·초토화 되었으며 이때 송호정도 전소되어 주변에 불타버린 잔해와 고성군에 재임하던 모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정자의 유래를 담은 대리석 석표만 남아 있다.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송지호의 전설은 전설은 조선 초기 약1백50여년전에 송지호는 비옥한 농지였었는데 이곳에 정거재(鄭巨載)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 심술과 욕심이 많아 시주간 사비승을 욕되게 해 인과응보가 있었다는 내용이 옛 간성읍지에도 전설로 기록돼 있다.

또 이곳 송지호와 더불어 송지호해수욕장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천연의 모래사장과 긴 해안선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으며 수심이 얕고 깨끗한 백사장으로 유명하다.

송지호 해수욕장은 바다 앞에 죽도(竹島)가 떠있는데 동해안에선 보기 드문 큰섬으로 대나무가 많아 죽도가 부른다.

조선조의 이충환은 “택리지”에서 송지호를 예찬 “해안의 모래는 빛깔이 눈같이 희고 고우며 더욱이 고성지방의 모래는 사람이 밟으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쟁쟁하며 마치 쇳소리와 같다”라 읊었다.

이제 송지호는 청아한 맑은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머지 않아 국내 제일의 관광 명소로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 통일전망대 (高城統一展望臺)

통일조국 민족 교훈의 유적지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高城郡)현내면(縣內面)명호리(明湖里) 바닷가 해발70여m 고지(高地)위에 세워진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에 오르면, 눈아래 전개되는 청량한 해변, 깨끗한 모래사장과 파아란 쪽빛 바다가 펼쳐지고 지척의 휴전선 넘어 아름다운 금강산(金剛山)줄기인 동해바다 끝에 넓게 자리잡은 구선봉(九仙峰)과 해금강(海金剛)이 바다에 점점히 떠있다.

구선봉(九仙峰), 감호(甘湖), 이곳에 옛날부터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 얘기로는 아홉신선이 놀았다하여 이름지어진 구선봉과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바다밑 풍경이 천하절경인 해금강을 바라다 볼뿐 분단 50여년동안 지금 97년 정축년(丁丑年)에도 지척의 낙타봉(일명 구선봉)너머로 두고온 고향을 아련히 떠올리며 조국분단의 쓰라림을 달래며 민족 비원의 통한의 세월만 흘러보내고 통일을 기원하고 있을뿐이다.



▲ 현내면 명호리 통일전망대



이곳 통일전망대는 1984년 2월9일에 세워져 해마다 국내외관광객 및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찾아오는 실향민등 해마다 1백50여만명이 다녀가고 있다.

통일전망대의 본관은 연건평 1백4평의 2층 슬래브 건물로 1층은 북한관이 있어 북한의 실생활들의 현황이 사진등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전망대로서 1백20여석의 좌석을 확보하여 놓고 북쪽전방 지형지물을 한문에 볼수 있는 모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쪽면을 모두 투명유리창으로 만들어져 금강산과 해금강등 북단의 해변과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볼수가 있다.

특히 고성의 통일전망대는 실향민들이 많이 찾아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영원히 잊지못하는 부모형제와 고향산천이 그리워 감회의 눈물을 적시며 울부짖음을 볼수가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아! 어머니.... 그리운 아버님이어. 불러봐야 메아리 뿐이다.

우리들의 후손들에겐 비원의 금강산 통일전망대가 아니라 영광된 통일조국 민족교훈의 유적지로서 “우리의 통일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으리라” “누구의 주체런가 맑고 고운산 그리운 일만이천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민 옷깃 여미며 그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해해마다 노래만 북녘하늘에 메아리 친다.





금강산(金剛山)의 자락 구선봉(龜仙峰)

바라볼수록 통일의 염원이 간절해지는 영원한
영산(靈山)

「금강산(金剛山) 찾아가자 일만이천봉(一萬二千峯)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節)따라 고운옷 갈아 입는산(山)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金剛이라네」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에서 들어보듯 갖가지 옛 이야기가 가득 지닌 산(山) 그 이름도 찬란(燦爛)하다.

고성군(高城郡) 현내면 명파리(明波里) 통일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철책넘어 금강산 자락 동해(東海)로 길게 자리잡은 구선봉(일명 낙타봉)은 동으로 해금강(海金江)과 옛적에 아홉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감호(甘湖)가 시야에 펼쳐진다.

지금 우리로서는 금강산을 어떻게 수식할까.

세월의 영겁속에 그때 그때마다 대문장가들이 이미 많은 명문(明文)들로 상찬했기 때문이다.



▲ 금강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구선봉

선영(仙靈)의 이적(異蹟)에 의한 천하(天下)의 명산을 함부로 다룰수 있을까.

우리 한민족의 크나큰 자랑거리였던 그 천하의 명산이 한쪽의 그림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옛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 금강, 구선봉, 해금강을 4계절의 풍광에 의해 명명한 별칭이 있다.

「춘(春) 금강산(金剛山), 하(夏) 봉래산(蓬萊山), 추(秋) 풍악산(楓嶽山), 동(冬) 개골산(皆骨山)이라 부를만큼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하는 세계적인 명산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동해안 최북단 구선봉(九仙峰) 북녘은 단 한치도 범할수 없게된 땅, 선경을 바라보며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만을 헤아려볼뿐이다.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구경을 간절하게 원했다는(願生高麗 國一見金剛山) 이는 송(宋)나라의 소동파(蘇東坡)였지만 이제 옛시인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며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꿈엔들 잊지못하는 금강의 향수(鄉愁)속에 이곳을 바라보는 눈망울에 촉촉한 이슬이 맺힌다.

아!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고 소리쳐 본다.



간성 은행나무 (杆城 銀杏나무)

수령(樹齡) 7백년 유서깊은 군 수호목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하2리(下二里) 군청입구 계단 좌측에 우람하게 자리잡고 있는 은행나무는 예부터 삼정, 사지, 오목(五木)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온갖 풍상을 겪고 고고하게 자라고있는 은행나무이다.

군청소재지인 간성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군청앞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어 풍치를 더해줄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세인들은 한번쯤 발길을 멈추고 그 웅장한 모습에 감탄을 터트리는 거목(巨木)다운 풍치를 발하는 군민들의 수호목으로 그 보배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우선 은행나무의 형태를 살펴보면 나무둘레가 7.5m, 높이가 25여m, 7백여년이나 수령(樹齡)이 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아름답리 가지가 동쪽과 서쪽으로 뻗쳐 있는 이 은행나무는 고려말기 1280년대에 심은 것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6·25전만 해도 이곳에서 20여m쯤 떨어진 곳에 자목(雌

木=암은행나무)이 있었는데 폭격으로 소실되어 없어지고 말았다.

전해오는 옛애기에 의하면 이조말기 이 은행나무 아래(현재군농협) 이원삼(李元三)이란 사람이 살며 이집에서 10여 마리의 닭을 키웠는데 닭이 매일 밤마다 한 마리씩 없어지는 괴이한 일이 생겨 밤을 세워 지켜보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몸길이 40cm, 넓이 10cm나 되보이는 보기드문 큰 지네가 목겨져있는데 10여수의 닭을 모조리 먹어버린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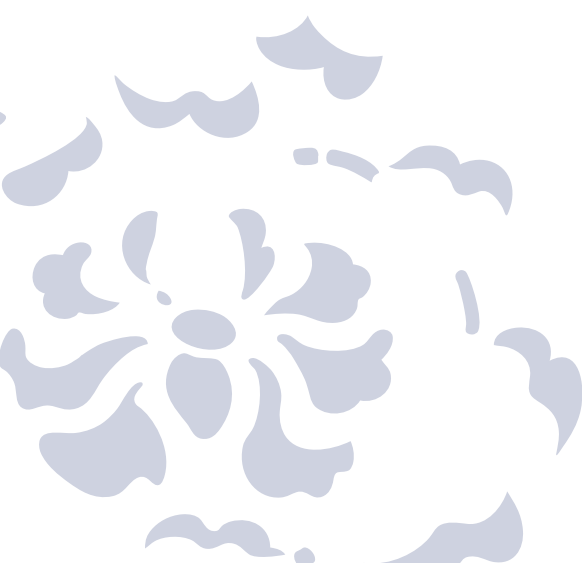
그후 왜군(倭軍)이 쳐들어와 왜군수비대가 진주하게 됐는데 이 은행나무에 지네가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잡기 위해 무수한 총탄을 나무에 퍼부었으나 잡을길이 없었다고 한다.

▼ 고성군청 앞에 있는 수령 700년된 은행나무



6·25때 괴로군들이 당시 간성공민학교 자리였던 이곳에 양민들을 강제동원 수용하고 불을 질렀는데 그때 학교화재와 함께 2그루중의 하나인 암은행나무가 불에 타고 솟은행나무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지난 64년도 가을 은행나무에 원인불명의 불이나 3일간 불에 탔었으나 나무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생기가 회복되었지만 해가갈수록 은행나무가 고사(枯死)위기에 직면하자 고성군은 군비 5백만원을 책정, 지난 93년도 6월에 서울나무병원에 의뢰 대대적인 내외과 수술을 1주일동안 받았다. 82년도 도(道)나무로 지정된 “거수거목”의 은행나무를 희생시켜 군민들의 자연사랑 운동의 귀감이 되었으며 세월의 풍상을 말없이 대변하여 고성군민의 사랑을 받는 수호목으로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다.





간성하리(杆城下里) 우물

태평성대 기원하던 역사 유물

고성(高城)의 삼정(三井)중 하나인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하2리(下二里) 17-5번지 군청입구 황연배(黃鍊培 69세)씨 주택의 앞마당에 위치한 “하리(下里) 우물”은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역사적인 유물로서의 내력이 구전(口傳)으로 면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려때 어느 원님이(이름미상) 고성 고을에 부임하여 3곳에 우물을 만들고, 4곳에 연못을 파고, 경관이 좋은 명당자리에 5종의 나무를 심으면 고을에 해마다 풍년이 찾아들고 백성들과 더불어 평안한 태평성대(太平聖代)가 오며, 고을 원이 장수하고 관운이 따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니 오랫동안 관직에 모무르게 되었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그 후부터 이를 삼정,사지,오목(三井 四池 五木)이라 했다.

간성읍(杆城邑)에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이야기의 삼정,사지,오목은 세월이 흐르고 6.25동란 전화의 폐허속에서 매몰되거나 사라져 이정일목(二井一木)만이 남아있다.

삼정(三井)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하리우물”은 물이 맑고 깨끗해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이곳 간성시내 주민들

이 식용수로 사요했다. 옛 구전되어 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약 7백년을 상회할 것이라 한다. 전고성경찰서 뒤편의 와우산 기슭의 10여m, 지하에서 수맥을 타고 하리우물로 용솟음쳐 올라 자연용수 되고 있는 하리우물은 아무리 무더운 여름철에도 손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차가우며 겨울에는 설한의 모진 추위에도 우물속에서 김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이에 군(郡)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역사유물 보전차원의 우물개수(改修)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994년 12월 26일 사업비 1천여만원을 들여 대폭적인 보수작업을 새행해 우물 내 직경 2m, 깊이 5m의 규모로 견치석을 쌓고 그 위에 잘 다듬어진 화강석을 3단으로 올려 우물정자(井)형으로 축석하고 우물위에 나무뚜껑(나무 부식방지를 위해 기름을 먹인 나무)을 덮어 먼지와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개수했다. 이에 이곳을 오가는 타지역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옛 것을 소중히 여기며 문화유적을 아끼고 사랑하는 심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삼정(三井)의 하나인 하리우물에 대한 “유래의 석표”를 세워 놓았다.

간성읍 하2리에 있는 삼정중의 하나(우물) ▼





고성산(古城山)과 관대암(冠帶岩)

왜침(倭侵)을 막아내던 전설의 성(城)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금수리(金水里)에 위치한 고성산(古城山)은 해발291여m 산꼭대기에 1만여 평의 구릉 분지로 되어 있다.

명승고적(名勝古蹟)으로 이름이 있는 명산으로 산위 한곳에 극심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천수(泉水)가 나오고 성(城)을 쌓은 돌담(성곽)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임진왜란때 각종 난을 방어하던 요새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6·25동란 때에도 아군이 이곳에서 북괴군과 격전, 간성을 탈환하는데 거점이 되어온 요충지로서 큰 역할을 한 산성이기도 하다.

아주 옛날에는 산(山)아래 수타사(壽陀寺=水陀寺)라는 절(사찰)이 있었는데 이 절에 웬일인지 빈대가 너무 많아 절의 기둥에까지 빈대로 엉켜 이곳 승려들이 건디다 못해 절간에 불을 지르고 홍천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관대암(일명 광대바위) ▲

또한 고려말엽(高麗末葉) 공양왕이 1392년 7월 14일 이성계가 왕위(王位)에 오르자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되어 원주로 추방된뒤 다시 간성(杆城)으로 피하여 수타사에서 2년동안 기거하다 1294년(太祖3年)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로 재유배(再流配)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수타사지(壽陀寺地)에는 광활한 절터에 갈대숲과 더불어 옛날을 말해 주듯 5층석탑만이 남아있다.

또한 고성산(古城山) 수타사 남서쪽(간성읍 어촌3리)에는 관대암(冠帶岩=일명·광대바위)이 웅장한 자태의 돌바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희귀동식물이 많이 있어 세인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관대암에는 독사와 지네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유명하다.



고성산과 수타사의 전설

고성산(高城山)은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와 金水里 산 394번지에 위치한 해발 350여 미터의 구릉으로 산꼭대기에 성(城)을 쌓아 난(亂)을 방어하기 위한 흔적의 산성이 현존해 있고 산밑에는 수타사라는 절터가 있는데 잡초속에 석탑만이 하나 남아 있을 뿐이다. 탑동리 마을에는 옛부터 「고성산과 수타사」에 대한 전설이 구전(口傳)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관헌들의 현정(賢政)과 우리의 뿌리깊은 남아선호관과 무관하지 않은 얘기이다.

때는 이조 중엽, 고성군수로 갓부임한 양봉래는 문란한 관(官)의 기강을 바로 잡고 현정(賢政)을 베풀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명관이였다. 어느날 마을에 때아닌 돌개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위세가 대단할 뿐 아니라 사흘간이나 계속되는 바람에 백성들은 해괴한 일이라며수근거렸다. 양군수의 근심이 또한 커서 밤잠을 설칠정도였다.

그날도 양군수는 뽕뽕거리는 바람 소리를 큰걱정스레 듣고 있었다. 바깥동정을 살펴볼 마음으로 현관을 나서는데 돌개바람이 바로 양군수의 얼굴을 향해 곧장 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이상스레 생긴 나뭇잎이 양군수의 발밑에 떨어지더니 순간, 바람은 언제 불었

던가 싶게, 잠이 든 것이었다. 그는 즉시 관현들을 모아 놓고 물었다. 「이 나뭇잎을 본적이 있는가?」 「모릅니다. 사또」 「어떤 나무에서 떨어진 잎인고?」 「처음 보는 나뭇잎입니다. 사또」 「이 나뭇잎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오는 자에겐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젊은 관현 하나가 나섰다 「소인이 알아오겠습니다.」 젊은 관현은 한양으로 올라가 저자 거리에 나뭇잎을 펴놓고 앉았다. 그리기를 며칠, 머리가 반백이 나 된 장년 한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 4그루 밖에 없는 희귀목이요, 경복궁, 불국사, 유점사, 수타사가 그 곳인데 이 나뭇잎은 바로 강원도 高城山 수타사(壽陀寺) 뒤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요」 그 말을 남긴채 그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수타사는 고성군관가에서 10여리나 떨어진 고성산 바로 밑 북동쪽 위치한 곳이었다. 그렇다면 나뭇잎이 그 먼 거리를 날아왔던 말인가? 젊은 관현은 허겁지겁 고성으로 내려

간성읍 금수리 수타사 절터 전경 ▼



와 사실을 군수에게 고했으며 양군수는 몇 명을 데리고 수타사 뒷산으로 갔다. 과연 그 나무는 있었다. 양군수는 그 나무를 살살이 조사라하고 명령했다.

「나무 밑동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풀잎사귀로 막아 놓았는데요. 치워보겠습니다.」구멍에서 나온 것은 가슴에 칼이 꽂힌 여인의 시체였다. 양군수는 생각한바가 있어 그 칼을 뽑아 간직한 후 수타사로 갔다. 「여러분 나는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 왔소,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평소 쓰는 칼들을 내게 갖다 주시오. 작은 칼이든 큰칼이든 모두다 가져 오시오」그러자 수타사 승려들은 모두들 자기칼을 가져왔고 양군수는 여인의 시체에서 뽑은 칼을 슬쩍 그 칼들속에 섞어 놓았다. 그리곤 모두들 자기 칼을 가져가도록 명했다. 생각대로 시체에서 뽑은 칼만이 남았다. 「저 칼은 누구 것이요?」「그것은 사비승 것이옵니다」「사령은 저 사비승을 포박하라」완강히 버티던 사비승은 결국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또 그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해 3년간 이 절에와서 불공을 들인 끝에 득남을 했습니다. 그후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불공을 드리러 왔는데 그 여인의 미모가 하도 빼어나, 뒷산 나무밑으로 유인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만... 흑흑흑」그 여인의 원혼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나뭇잎을 관가에까지 날려보냈을꼬 여봐라! 이 죄인을 관가로 압송하라」그 후에도 양봉래는 선정을 베풀어 고을 백성을 평화롭게 했으며 문장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한다. 또한 고성산 수타사에는 살인사건 이후 빈대가 많이 생겨 벽과 기둥을 덮는 이변이 발생하는 바람에 스님들은 절에 불을 지르고 홍천군 동면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지금은 절터만 남은 곳에 석탑하나만 남아 그 옛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하다.



문암 능파대(文岩 凌波臺)

태고적 신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동해안 북단 7호선 국도를 따라 속초에서 약10여km지점에 동광(東光)농공고등학교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동쪽, 바로 앞에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문암2리(文岩二里) 향포구를 길게 둘러싸고 있는 능파대(凌波臺)가 자리잡고 있다.

이섬(島)의 연혁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옛날에 강원감사(江原監司)로 재직해 있던李모씨라는 분이 도내(道內)를 순시하던중 잠시 이곳에 들러 낚시를 즐기다가 능파대의 기암괴석(바위모양)과 해안의 절경에 감탄, 바위를 때리는 파도의 물보라의 광경에 반해버려 즉석에서 바위 이름을 “능파대”라 짓고 수행원들에게 친필로 쓴 凌波臺를 바위에 조각시켜 현재까지도 가진 풍상과 거센파도에도 지워지지 않고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 능파대는 남쪽으로 토성면(土城面) 교암리(橋岩里)향구와 천학정이 한눈에 바라보이고 또한 북쪽엔 문암천 하구의 입새일뿐만 아니라 문암1리(일명 백도해수욕장)향포구의 아름다운 해안의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다.



▲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능파대”

마을이 하천(문암천)과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섬과 다름 없다 하여 연꽃형 마을이라고 불리어 오기도 했다.

토성면(土城面)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문암2리의 동북쪽의 해상(海上)위에 기출한 “능파대”는 병풍처럼 갖가지 형상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약6백여척의 천연적인 방파제가 준마(駿馬)의 형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옛날 이곳에 구축했다는 누대의 행적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능파대 마을문암2리를 가르켜 항상 걸려 있다고 하여 패(掛)자와 바다를 옆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나루진(津)자를 붙쳐 이곳 토착민들은 속칭 패진(掛津)리 또는 패진항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이곳은 지난 1959년 주민들의 애향심과 열의로 능파대와 연결하여 축항을 만들었으면 어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주민이 많고 교암에서 문암항에 이르는 해안도로가 잘 포장되어 청아한 바닷물가 어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낚시꾼들이 사계절 끊이질 않고 있으며 태고의 신비가 아름다움을 더욱 뽐어내고 있는 곳이다.



어명기 전통가옥

(魚命驤 傳統家屋)

1500년대에 처음 건립한 팔작지붕의 전형한옥

고성군 죽왕면(竹旺面) 삼포1리(三浦1里), 일명 순포리 5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어명기 전통가옥은 삼포해수욕장(코레스코 콘도)에서 오희리쪽 7번국도 중간지점에서 서쪽 산길로 접어들면 약1백m 오른쪽 기슭에 대한불교 태고종 “반야사”가 나오고 좀더 올라 1km지점 양지쪽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어명기 가옥은 어씨(魚氏)마을 집성촌(集姓村)에 1천5백 년대에 처음 건립되어 1750년경에 소실된 것을 3년만에 복원한 한옥식 전통가옥으로 37평규모의 구자복례(口字複例)형으로 전형적인 부유층 가옥구조로 원형대로 5백여년간 잘 보존되어 있다고 문화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가옥은 지난 84년도 1월 10일자로 국가중요민속자료 131호로 지정되었는데 고성군에서는 민속가옥 지정에 따라 문화재 보전관리 사업으로 군비 1천7백만원을 들여(93년) 보수, 정비해 옛모습을 되찾게 됐다.

어명기 가옥은 가옥구조가 장대석으로 바른층 쌓기를 한 민도리집으로 높은 기단위에 방주(方柱)를 세운 팔작지붕

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 외모가 웅장하다.

부속건물로는 발방앗간, 행랑채, 헛간(곡간), 화장실 등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며 발방앗간의 절구공이가 마모된 정도를 보아 전문가들은 약 2백50년 정도의 긴 역사를 간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농촌에서 생산된 각종 곡물들을 이를 통해 탈곡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다.

어명기 가옥은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가옥이 강제로 몰수되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1950년 6.25당시에는 한국군 제1군단 사령부 야전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처절한 전화속에서 폭격을 당하지 않고 잘 보존된 것은 이 곳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명당자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마을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96년 4월 23일부터 사흘간 토성, 죽왕면 일원에 발생한 산불화재의 대난으로 어명기 사옥 주변의 1백여 년된 노송들과 대나무 숲이 모두 불에 탔으나 가옥은 소실되지 않고 부속건물인 발방앗간이 전소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죽왕면 삼포1리에 있는 어명기 가옥





함형찬 전통가옥

(咸炯贊 傳統家屋)

국가(國家)지정 전통건조물

왕곡(旺谷)마을은 고려말에서 이조초기 사이에 함씨들이 집성촌을 형성, 이곳 해발 2백 80m의 “오음산”을 중심으로 5개의 봉우리가 마을을 포근히 둘러싸고 있어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오봉리(五峰里)라 이름하였고, 또한 송지호(松池湖)를 앞에 두고 마을이 형성됐다.

이곳 가옥들은 건립연대가 50~1백50여년된 전통가옥 가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고, 지붕의 형식도 팔작지붕으로 겹집으로 건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곳 전통 함형찬(咸炯贊) 오봉1리에 소재한 가옥은 그 구조가 전면은 4칸이고 측면은 2칸, 그리고 반칸정도 크기의 뒷마루칸이 한칸더 있다.

전면에 대청2칸이 걸쳐있고 그 뒤에 안방과 측면에 사랑방, 수납(곡식창고)공간이 있는 평면 형태이다.

중간대청 방은 구성리 “정찰수”씨 집에서 없어진 것이 이

가옥에서는 잘 보존되고 있다.

안방의 뒤와 사랑방의 측면에 툇마루가 있고 부엌에는 광이 있어 저장 공간과 방문객 접대를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하였음을 증명해 주고있다.

안방의 툇마루에는 뒤주가 있고 사랑방 측면에 출입을 위한 일각대문이 흙담장을 두고 있고 또 작은 담장안에 사랑정원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잘다듬어진 장대석을 두겹게 쌓아 기단을 형성하고 사랑방 정면에는 별도의 아궁이가 있고 간판석을 아궁이 위로 지나가게 하여 툇마루로 이용하고 있다.

측면의 사랑마당과 기와+흙으로 만들어진 굴뚝과 흙+돌+기와 잇기의 담장은 잘 조화되어 아름다운 미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면의 창호는 두짝 여단이 세살문이며 대청은 청판있는 머름대를 하인방 위치에 설치했고

대청의 부엌쪽 창호부분에는 출입의 편의를 위해 조화를

▼ 죽왕면 오봉1리에 위치한 함형찬 전통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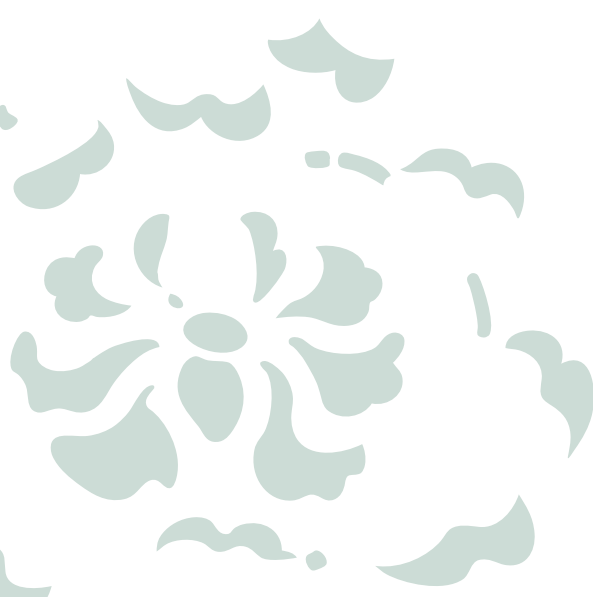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굿간 상부에 수납(곡간)공간이 있고 지붕의 합각부에는 까치구멍이 있다.

본채의 뒤로 자연석 세겹대 쌓기 기단위 자연석 초석이 놓여진 방+광+광으로 짜여진 고방채와 광의 바닥은 우물마루 바닥이고 벽은 판벽이며 맞배지붕 약식으로 되어있다.

이곳은 함형찬 가옥이외에도 전통한옥 건축물이 많은데 거의가 유사한 형식이며, 왕곡마을 오봉1리는 지난 1998년 8월 18일 문화공보부 고시 제736호 74, 544호로 국가 지정 전통건조물 보호지구 제1호로 지정되어 점차 옛것을 보존, 개선하여 전통 문화유적의 도장으로 면목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덕균 전통가옥 (李德均 傳統家屋)

강원도 문화재 자료 77호 85년도 지정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인정2리(仁亭二里) 41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작고한 이덕균(李德均 80세) 전통가옥은 7번국도 오호리에서 서쪽으로 송지호를 옆에끼고 약 2km마을고개를 넘어 우측으로 뒷산을 배경으로 양지바른 곳에 옛모습 그대로 한옥이 잘 보존 되어 있다.

동북부 고성지역에 몇채없는 건축물로서 북부형의 온돌중심 주거문화와 남부형의 마루중심 문화가 함께 혼용된 전통건축물로서 독특한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덕균가옥”은 강원도문화재 자료 제77호로 지난 1985년 1월 17일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가옥이다.

전통주거 건축물로서 건축연대는 자세히 알수없으나 원래 죽왕면 구성리 마을에 있던 가옥을 약75년전 현재 위치로 이축하였다 하며 가옥의 특징은 대패를 사용하지 않고 자귀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지은 집이다.

가옥의 구조를 살펴보면 ㄱ자겹집 평면으로 전면(4칸, 측

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형식으로 전면 전열 2칸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측면은 사랑방과 골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면이 3칸일 경우는 영동북부지방에서는 마루가 안방으로 변환되며, 한칸이 마루일 경우에는 뒤쪽으로 안방이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가옥은 2칸에 걸쳐 마루가 있으므로 사랑방은 측면으로 이동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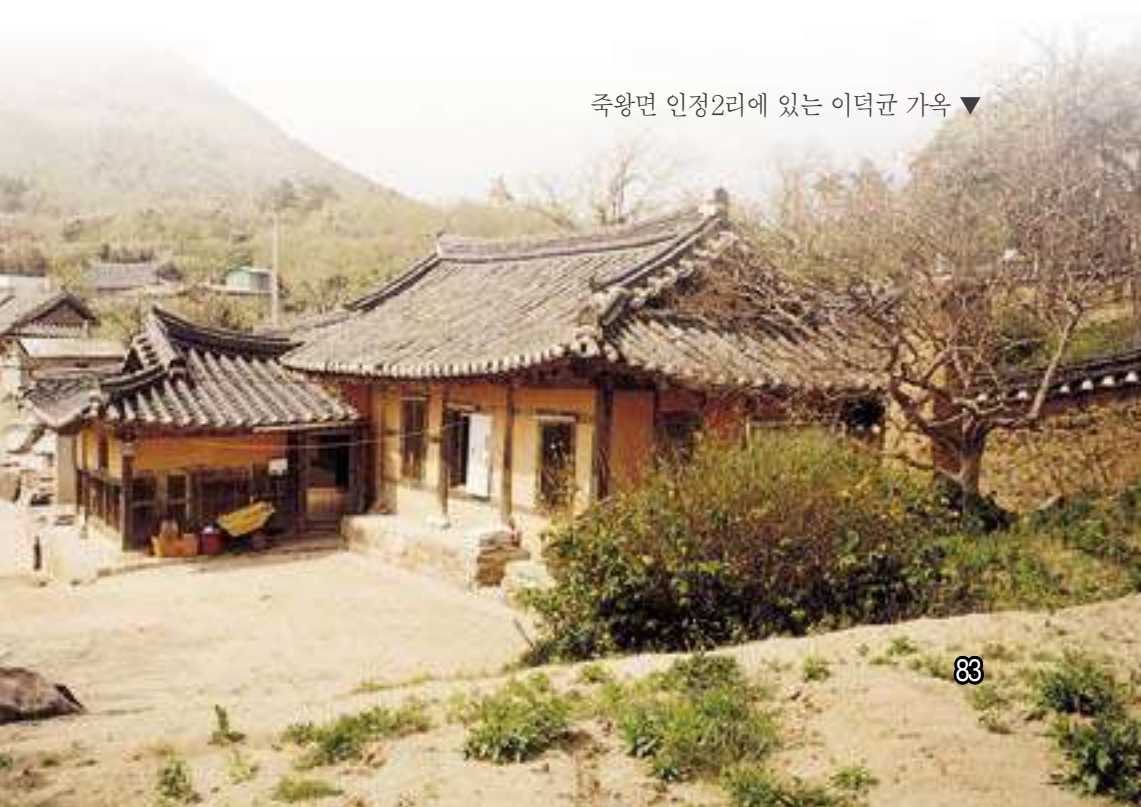
그리고 부엌에 이어서 마굿간이 본채와는 지붕이 이어져 있지 않고 조금 낮게 ㄱ자로 튀어 나와 있다.

기단은 자연석 초벌대 기단위에 세겹대 쌓은 후 석축 사이에 진흙을 넣었다.

우물마루 대청의 중간마루에는 6.26후 개조하여 곡식을 저장하는 뒤주가 있었으나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대청의 벽은 회벽, 천정은 합판무늬목을 마감, 큰방과 옷방 사이에 두짝 미닫이가 있었다.

죽왕면 인정2리에 있는 이덕균 가옥 ▼



또한 사랑방 마감은 큰방이나 동일하며 도장방은 흙바닥 위 대자리를 깔았고 난방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마굿간의 상부는 다락이 있어 수납(곡식창고)공간으로 사용되도록 건축되어 있고 외쪽판벽 여닫이 문이 있으며 측면에는 정자형 창호가 걸려 있다.

가옥 본체의 뒤편으로 전면3칸의 맞배지붕형식 고방채가 방+광의 평면형태로 중축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구조로 돼 있는 것은 몇 개없는 한옥이다. 오랜 역사와 풍상을 지내오는 동안 가옥이 노후되어 현재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스며들어 보수가 시급하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옥 주인도 함부로 집을 개·신축하기 어려워 현황대로 보존되어 있다.





왕곡(旺谷)마을 민속촌(民俗村)

제1호 전통건조물 보전지구

고성군 죽왕면(竹旺面) 오호리(五湖里) 송지호(松池湖)를 지나 공현진리(公峴津里)를 채 못가 오봉교에서 서쪽으로 꼬불꼬불한 마을진입로를 따라 1km지점에 있는 왕곡(旺谷)마을은 지금의 오봉(五峰)1리의 옛 지명이다.

오봉리 왕곡마을은 지난 1988년 8월 18일 문화공보부(당시) 고시, 제736호로 전국에서 제1호로 전통건조물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동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민속촌으로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 옛 조상들의 삶의 현장을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 정비하여 전통한옥 민속마을로 가꾸게 되었다.

왕곡마을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 사이에 함씨가 이곳에 들어와서 집성촌을 형성하였으며 최초에는 지금의 간성읍(杆城邑) 금수리(金水里)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곳에는 안동 권씨가 먼저 살고 있었으나 함씨들에 의해 다른 부락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 죽왕면 오봉1리 왕곡마을 민속촌 전경

그후 14세기경 강릉 함씨, 강릉 최씨, 용궁 김씨가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다.

해발 280m의 오음산(五音山)을 중심으로 마을이 5개의 산봉우리에 둘러쌓여 있다하여 오봉리라 이름하였으며 마을 앞에 송지호(호수둘레 4km, 면적 20만평)를 앞에 두고 마을을 형성하였다.

왕곡마을(오봉1리)에 인접하고 있는 죽왕면 구성리에 예부터 기와 굽는 공장이 있어 기와집을 많이 짓고 살았다고 전한다.

지금도 왕곡마을 민속촌에는 19세기를 전후하여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 21동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밀집 보전되어 있으며 옛 그대로의 풍습과 풍물들을 지녀오고 있는 곳으로 마을 주변의 대나무숲과 울창한 송림, 5개의 산봉

우리에 둘러 쌓여 6.25동란의 와중에서도 지형의 특수한 여건으로 신기하게도 한번도 폭격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왕곡마을의 고가옥들은 건립연대가 50~150년된 한옥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으며 지붕의 형식도 팔작지붕으로 동일하고 겹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양간은 모양이 지붕에 이어져 있는 형과 덧달아낸 형식의 두가지가 있는데 사랑방의 난방은 별도로 된 형이다.

왕곡마을의 대표적인 5가구(가옥)는 함형길, 최종복, 한경자, 함형찬, 함정균씨 가옥이며 특히 함형길 가옥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 가옥으로 마굿간이 이어져 있지 않고 평면의 구성은 마루방, 안방, 사랑방, 고방 등으로 짜여져 있고 구조체는 초벌 기단(H:45cm)으로 자연석 초석이며 창호는 두짝 여닫이 세살문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체는 뒤쪽으로 광+방으로 된 별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왕곡마을은 지난 88년도에 전통구조물 보전지구로 지정된 이래 10개년 계획에 따라 89년부터 98년까지 총 39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전통가옥보수보전, 효자각 정비, 소하천 98m를 정비하는 등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장으로, 또한 관광객들이 옛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들어 민속관광촌으로 그 모습이 서서히 조성되어 가고 있다.



전봉상 효자각

(全鳳祥 孝子閣)

승고한 효친사상의 표상 기려

거진읍(巨津邑) 대대리(大垈里) 삼거리에서 진부령쪽으로 약1km 올라가면 46호선 국도변 바로 옆에 간성읍(杆城邑) 교동리(校洞里)에 위치, 자손대대로 정선전씨(旌善全氏) 가문들이 모여사는 이곳에 팔각지붕의 전봉상(全鳳祥) 효자각(孝子閣)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조선 선조때 효자로 이름이나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해 전씨문중의 46대 조상인 봉상(鳳祥), 51대 조상인 공순(孔淳), 54대 조상인 재후(載厚)등 세분의 효자비(孝子碑)가 모셔져 있다.

전봉상은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독서삼매경에 문힐정도로 공부만 하였던 소년으로 특히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한 아이로 소문이 널리 알려졌었다고 한다.

봉상이 7세되던 어느 겨울날 부친이 중환으로 눕게되자 꿇동냥으로 어른들의 말씀이 잉어를 고아(다려)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동호리 호수를 떠 올렸다.

이를 생각중 이튿날 정월 새벽 찬바람을 쏘이며 어린나이



간성읍 교동리에 위치한 전봉상 효자각 ▲

에 혼자서 20여마리나 떨어진 호수까지 추운 겨울날 눈길 속을 헤쳐 나가던중 호수가에 거의 가까이 다가갈 무렵, 웬지 모르게 겨울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뇌성병력과 함께 난데없이 팔뚝만한 잉어 2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길 안는가. 이를 귀히여겨 어린소년은 하늘의 지극한 도움이라 생각되 급히 집으로 잉어를 가져가 정성을 다해 다려드렸더니 부친의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그 훗날에도 아버님에 대한 효친봉양이 지극하였으며 그를 따라 후대인 공순(孔淳), 재후(載厚)같은 분도 같은 효심과 정성으로 웃어른들을 잘 모셔 그이 후손들이 1610년 세분의 효자비를 세워 효자각을 세웠다고 한다.

지금도 매년 이곳에서 후손들이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자랑스런 옛 선조들이 가르치고 숭고한 효친사상을 기리기 위해 군(郡)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문화유적 보호차원에서 보수 및 단청공사를 실시해 군민의 경로효친사상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근함씨 4세효자각 (楊根咸氏 四世孝子閣)

전국 제1호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문공부고시 제 736호)된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오봉1리(五峰一里) 왕곡(旺谷)마을 민속촌(民俗村)은 송지호(松池湖)를 앞에두고 5개의 산봉오리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오호리를 지나 7번국도를 따라 공현진리를 채 못가 서쪽으로 1km쯤 마을길을 따라가면 마을 입구 소나무와 대나무 숲 양지바른곳에 양근함씨 4세효자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오봉(五峰)마을은 함씨(咸氏)집성촌으로 함씨4세 5효자각(咸氏四世 五孝子閣)이 있는데 4대에 걸쳐 5효자가 났다하여 조정에서 효자집안에 벼슬을 내리고 이의 효행심을 만대에 기리고자 1820년에 효비를 건립했다.

어린이들을 모아 가르키는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지내던 함성욱(咸成郁)은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자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내어 부친께 약으로 드려 병환이 호전되어 연명하였다고 가록한 소문이 온 고을에 알려졌다.

효행의 소문이 조정에서 알게되어 나라에서 그에게 “조봉대부”(朝奉大夫)의 칭호를 내렸고 그의 아들 인흥(仁興)과 인홍(仁弘)은 부친 성욱(成郁)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칭호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 덕우(德祐)는 부친 인흥이 병환으로 눕게되니 똑같은 간병이 지극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칭호를 받았다.

또한 그의 아들 희룡(熙龍)도 그의 부친 덕우(德祐)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니 병환이 회복되었다고 하며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자식된 도리로 3년간을 시묘하는 등 한집안에서 4세 5효자가 났다.

이에 조정에선 이렇게 보기드문 효자집안에 벼슬을 내려 주고 이들의 효행을 널리 알려 그 뜻을 기리고자 비를 건립토록 하였고 4대효자가 났다하여 4세5효자각이라 이름을 명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현대인들의 점차 희색되어 가는 충효효친 사상의 산교육장으로서 그 빛을 발할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양근함씨 4세 효자각 전경 ▼





함희석 효자각

(咸熙錫 孝子閣)

후세들을 위한 경로효친의 산실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오봉리(五峰里) 일명 왕곡(旺谷)마을 396번지에 함희석(咸熙錫) 효자각이 위치해 있다.

희석의 부친인 덕인(德人)은 이조순조(李朝純祖) 28년 무자(戊子) 3년 서기 1828년 5월 10일생으로서 3형제를 두었으며 희석(熙錫)은 그의 장남이었다.

어렸을때부터 천성이 온화하고 부모를 모시는 효친사항이 탁월하였으며 또한 마을 어른들에게도 공경하는 예의가 남달랐다.

그러나 가세가 워낙 빈곤하여 갈망하던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부친이 항상 술을 좋아해 10여세의 어린 소년이지만 혹시나 부친께서 실수나 유고가 있을까봐 늘 걱정이 되어 멀고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효행봉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오년(戊午年 서기 1858년) 겨울날 부친이 병환으로 앓



죽왕면 오봉1리에 위치한 함희석 효자각 ▲

아 늙게 되자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약으로 들게하니 다시 소생(蘇生)하였다.

그리고 서기 1860년 2월에 천화(天火)가 발생 (울창한 산림의 나무와 나무의 마찰로 자연 발생의 산불을 천화라고 함) 영동9읍(嶺東九邑)이 일시에 화난(火難)이 일어났는데 부친이 술에 취하여 귀가도중 길가에서 잠이들었다가 큰 화상을 입어 움직일수 없게 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을 했다고 한다.

그때 희석이 나이는 16세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년 경신년(庚申年) 3월 1일 1860년 부친의 상을 입고 3년간이나 묘 앞에 부친이 생전에 좋아하던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밤에는 범(호랑이)의 호위아래 대묘(待墓)했다한다.

이와같은 효행이 고을에 알려지자 조정으로부터 정려(旌
閭)를 하사받았다. (孝子通政大夫 敦寧府都正)

희석은 이조현종 12년 10월 7일에 출생하였으며 (乙巳年
서기 1845년) 서기 1918년 10월 14일 74세의 나이로 수
(壽)를 마쳤다.

자(字)는 사언(仕彦)이요 호(號)는 오헌(梧軒)이요 묘
(墓)는 죽왕면 공현진리 선유담(仙遊潭)부근에 있으며 슬
하에는 영두(泳斗), 영준(泳俊), 영우(泳祐)를 두었다.

현재 효자각에 있는 비신의 높이는 1.75m에 정, 축 1칸
의 보호각이며 비는 1869년(己巳년)에 세웠고, 비각은
1871년(辛未年)12월에 건립됐다.





노상언 효자각

(盧象彦 孝子閣)

토성면(土城面) 용촌(龍村) 2리(里)에 있는 효자각(孝子閣)의 현판에는 “효자학생 노상언 지문(孝子學生 盧象彦 之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한평생을 포의한사(布衣寒士)로 학(鶴)처럼 고고하게 살다간 노(虜)선비의 넋을 기리기 위해 1892년 노씨문중(虜氏門中)에서 세웠다고 한다.

소재공(蘇宰公)의 12대손(代孫)인 노상언(盧象彦)은 충명하고 행실이 바르고 의(義)로운 일만을 행하였으며, 특히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와 웃어른을 공경하는등 선비다운 행실과 선행(善行)을 다하였다고 하여 효자칙지(孝子勅旨)를 받았으며 효행(孝行)에 관한 것은 동국명현록(東國明炫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노상언은 어릴때부터 지혜롭고 주경야독(晝耕夜讀)하여 주위에서 벼슬길로 나가도록 권고하였으나,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한 그는 한시도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다하며 또한 흙이 생명을 발하는 것은 농부의 손에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인 것처럼 학문이란 자신의 마음을 완성하기 위해 누구나 해야 할일 벼슬을 위해 닦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

다고 한다.

노선비의 선친께서 병환으로 몸져눅자 그는 장벽속의 논문서를 꺼내 약을 구하고 만류하는 아내에게 “땅이야 돈을 벌어 다시 살 수 있어도, 아버님의 생명은 천금을 주고도 다시 살 수 없다” 하며 정성껏 약을 드리고 정한수로 치성을 올려 부친의 병환을 완쾌시켰다고 한다.

이렇듯 그는 효심이 극진했고, 자연에 묻혀 욕심없이 고고하게 살다간 선비 중의 선비였다.

▼ 토성면 용촌2리에 있는 노상언 효자각





열녀 연안김씨 (烈女 延安金氏)

남편과 시부모를 공경한 정절 · 효행의 표상

조선조 고종때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용촌리(속초와 고성경계 4차선 7번국도 “용촌교”에서 서쪽으로 1km 지점)에 노병곤(盧柄琨)이라는 착한 민초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어린동생을 거느리고 나이 어린 부인을 맞아 살다가 뜻밖의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아 눕게 되었다.

이에 어린 아내 연안김씨는 간병에 온 정성을 다 쏟았으나 마침내 남편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눈앞이 캄캄하여 어쩔줄을 몰라 하다가 귀동냥으로 들은 생각이 문득 떠올라 부인은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남편의 입안에 넣어가면서 정성을 다해 희생하기를 바랬으나 마침내 운명의 슬픔을 감수하게 되었다.

그때의 남편나이가 18세요, 부인 연안김씨는 겨우 13세로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다.

그후부터 연안김씨는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남편의 혼을 모시고 수절하면서 시동생의 장남재용(在容)을 양자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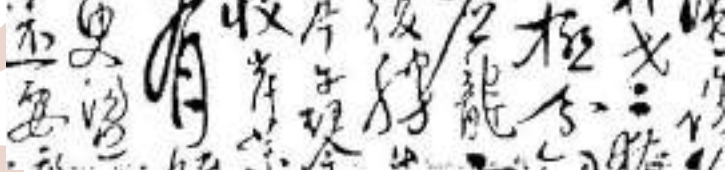


▲ 용춘2리 열녀 연안김씨 비각

아 부군의 대를 잇게하고, 양자인 재용을 서울휘문고를 졸업시키고 일본 동경 유학까지 보내 대학교를 졸업시키는 등 평생동안 시부모에게는 천하에 없는 효부로 그 효행이 고을에 널리 알려 졌으나 끝까지 먼저간 남편을 사모하는 열녀로서 정절을 지키다가 1952년에 그의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예조(禮曹) 학사원(學士院)에서 내리는 효부(孝婦)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광주 노씨문중(盧氏門中)에서는 연안김씨(延安金氏)의 효부(孝婦)됨과 열녀(烈女)됨을 후세에도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지난 1952년 10월 10일 현재의 토성면 용춘(龍村) 2리 마을입구에 「연안김씨 열녀비각(延安金氏 烈女碑閣)을 건립하고 그녀의 생존시 아름다운 마음씨와 효행의 업적을 기리고져 현판에 새겨 만고불변토록 영구보존케하여 후손들에게 덕과 효행심을 전하여 주고 있다.」

지금도 이곳엔 뜻있는 사학자들은 물론, 해마다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으며, 행정관서에서 문화유산으로 관리 보호하고 있다.



봉래 양서언(蓬萊 楊士彦)

신(神)이 내린 서예(書藝)의 대가(大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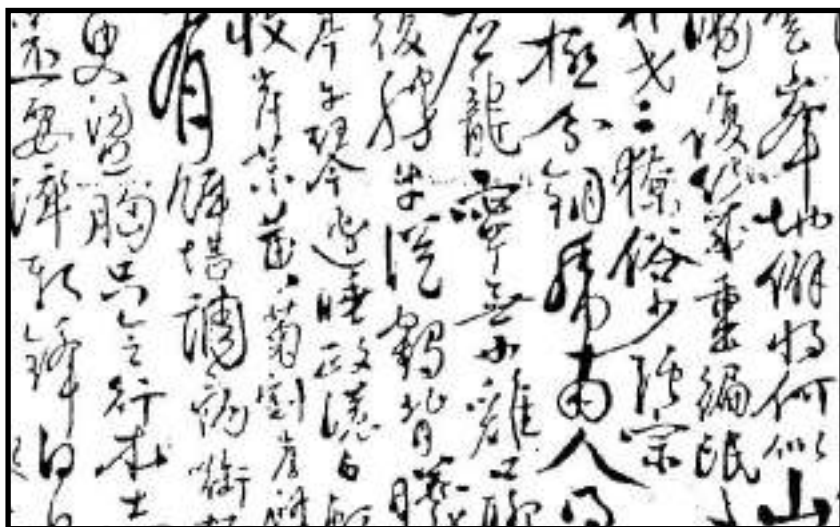
양사언은 조선전기의 안평대군(安平大君) 한석봉(韓石峰)과 더불어 서예(書藝)의 사대가(四大家)이다.

중종12년(1517년) 고성군(高城郡)의 출생자로 명종 1년(1546년)문과에 급제, 평창군수, 강릉부사, 함흥부윤, 회양군수, 안변부사등의 지방관을 두루 역임한 인재로서 호는 봉래(蓬萊)이다.

특히 그의 초서(草書, 한문)는 워낙 신필(神筆)이라 따를이가 없었으며 금강산 만폭동에 새겨놓은 「봉래풍 악원화동천」(蓬萊楓 嶽元化同天)8자는 기묘(奇妙)한 필체로 마치 금강산 1만2천봉 무계를 압도할 수 있는 신품(神品)으로 세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성품은 아름다운 우리국토의 강산순례를 낙으로 삼아 명승지마다 그가 쓴 필적이 많이 있다.

또한 그는 명관(名官)이면서 청백하기로 이름나 있어 강릉부사로 있을때의 선정비(善政碑)는 현재까지 목민관으로서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시조작가로도 뛰어나 누구나 잘알고 부르고 시조「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



▲ 조선4대 서예가인 양서언의 서체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도 그의 작품이다.

강원문화총서 중 태백의 인물편을 보면 「그의 풍채는 선 품도골이요, 글씨는 시선의 경지에 든 초성(草聖)이요, 관리로는 청빈한 명관(名官)이요, 풍류는 현묘의 경지에 들 었고 시문은 천의 무봉하였다」고 실존때에 전설을 낳은 사 람이라고 찬사를 했었다고 한다.

양사언의 필적(筆跡)은 설악산의 비선대(飛仙臺) 대승폭 포의 구천은하(九天銀河), 두타산(頭陀山), 무릉계(武陵溪)의 “무릉중대 두타산 원천석동천”(武陵中臺 頭陀山 源泉石洞天)등이 있다.



고성 금단작신가면 (高城 錦鍛作神假面)놀이

옛 고을의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전통민속

「금단작신가면놀이」는 옛고성 고을(郡)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서 사당(祠堂)에 매해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데 비단으로 신(神)의 가면을 만들어 사당안에 마련해두면 12월 20일 이후에 그 신이 고을 사람에게 내려 신이 오른사람은 그 신의 가면을 쓰고 안녕을 빌어주고 집집마다 그신을 맞이하여 함께 즐기다가 정월보름에 그 신(神)을 사당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금단작신가면놀이」의 특색은 신(神)이 내리는 사람은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고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선정하여 인간이 생활하는데 지표로 삼고 악(惡)을 벌하며 액을 몰아내고 풍농(豐農)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들을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끌어 내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고유의 미풍양속을 기리고 있다.

이 놀이는 출연과정이 모두 5개의 과정으로 첫째가 사당제(祠堂祭)로서 군(郡)의 사당에 관(官)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비단으로 신의 가면을 만들어 사당안에 비치하여 매달 지내는 제사이며 또한 강신제(降神祭)는 12월 20일 이후 마을 사람중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이에게 사당신(祠堂神)이 내린다.

또 제3과정에서 액막이로서 신(神)이 오르는 신(神)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그 관아의 안과 고을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그 가면 신(神)을 맞이해서 즐겁게 놀며 악귀와 잡귀를 몰아 내며 4~5과정에서는 풍농풍어제(豐農豐漁祭)로 마을사람들이 모두모여 가면신을 모셔놓고 풍농과 풍어를 위한 제사를 올리며 송신제(送神祭)는 정월대보름 신에 가면신(神)을 사당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의 민속놀이로서 고성군에서는 1996년 9월 19일~20일 철원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호응과 갈채를 받은 바 있다.

▼ 금단작신가면놀이 민속경연 장면





수성 수호신 제단

(迺城守護神祭壇)

군(郡)민의 안녕과 번창을 비는 성역

고성군 간성읍(杆城邑) 금수리(金水里) 뒷산(일명 간박재)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수성수호신위비」는 그 주변이 명터로 이름난 곳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곳 부근에는 천하정(天下井, 우물이름)이 있었는데 용마가 났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전망이 좋기로 유명해 앞을 보면 멀리는 거진읍(巨津邑) 대대리(大垈里)와 북천교(일명 합작교)가 보이며 고성공설운동장과 간성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수성비주변은 2백여평의 부지에 5백여년생 노송 4그루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 진입로 계단을 자연석으로 조성, 25계단으로 되어있다.

수성(迺城)이란 고려때 간성(杆城)지역의 지방행정 명칭이었으며, 수성비는 지난 1991년(단기 4324)에 건립됐다.

수성수호신위비는 4만 고성군민의 한결같은 정신적 믿음의 성역지로서 건립동기는 일월성진(日月星辰)을 주관하는 천제(天帝)와 지상만물을 육성(育成)시키는 지신(地神)과 모든 산천을 보살피주는 산신(山神)과 동해의 순파(順波)를 주관한다는 용왕신(龍王神)등 천지산해(天池山海)의 사위(四圍) 신(神)을 수성수호신으로 군내거주(郡內居住) 전 군민의 안녕과 자손창성(子孫昌盛), 수복무궁(壽福無窮), 생업번영(生業繁榮), 만화융통(萬和融通)하고 영구만세(永久萬歲), 군세(郡勢)의 융창(隆昌)으로 수성의 면맥(綿脈)을 계승하도록 염원(念願)한다고 기문(記問)에 적혀 있는데 이용선(李容善) 군수 재임당시 작고한 함병철(咸炳哲, 전문화원장)씨가 수성문화제 추진위원장을 맡아 건립했다.

이곳 “수성수호신위”라는 비문휘호는 함귀호(咸貴鎬, 전 교육위원)씨의 필적이며 기념기문은 권만희(權萬熙, 전 고성군청근무)씨의 글씨로 쓰여져 있다.

이와같이 수성수호신위비는 고성군민의 생업번영을 비는 제단으로 해마다 9월 22~23일(2일간) 개최되는 수성문화제(최초 1983년) 전야제행사로 제사(祭祀)를 지내며 식전행사, 민속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등 화합축제가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간성읍 금수리 간박재 기슭에 위치한 수성제단





현감택당 이공거사비 (縣監澤堂 李公去思碑)

제임시 인재양성 및 지역개발 업적기려....

간성읍 시내에서 대대2리 검문소 서쪽인 46번국도변 진 부령쪽의 교동리 간성향교 앞에 현감택당 선생 이공거사비가 위치해 있다.

택당이공거사비의 주인공 택당(澤堂) 이식(李植)선생은 인조때 간성현감을 역임한 인물이다.

당대에 택당 이식은 재임기간동안 간성군지, 일명 수성지한권을 편찬하여 고을의 자세한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수성지는 고성군 최초의 읍지(邑誌)로서 높게 평가되어 후대에 널리 알려져 내려왔다.

아울러 그는 재임기간중 인재의 양성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을 많이 쌓아 세인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아 왔다.

거사비(去思碑)는 택당 이식의 이와같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으며 건립시기는 현종2년(166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 현감택당 이공거사비(간성읍 교동리)

택당 이식의 거사비는 1981년 3월 진부령도로 확포장공사에 배수로에 매몰된 것을 발견했다.

이는 당초 1922년경 진부령도로를 처음으로 건설할 때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사비를 발견했던 당시 간성향교의 전교를 맡았던 김경명(간성읍 해상리)씨에 의해 확인이 됐으며 복원논의가 있었다.

다음해 4월 26일 이찬규(1980년 4월~1982년 8월까지 재임) 고성군수가 당시 향교의 전교였던 이백규(거진읍 초계리)씨를 중심으로하여 유림들의 협조를 받아 현재의 위치에 복원했다.

아울러 1985년에는 고성군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방인사들로부터 수집된 시문으로 거사비 중건을 기념하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의 거사비는 2단의 기단위에 세워져 있으며 비갓을 씌우지 않은 거사비는 보호철책으로 잘 보존되어 이곳을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간성향교 기적비각

(杆城鄕校 紀蹟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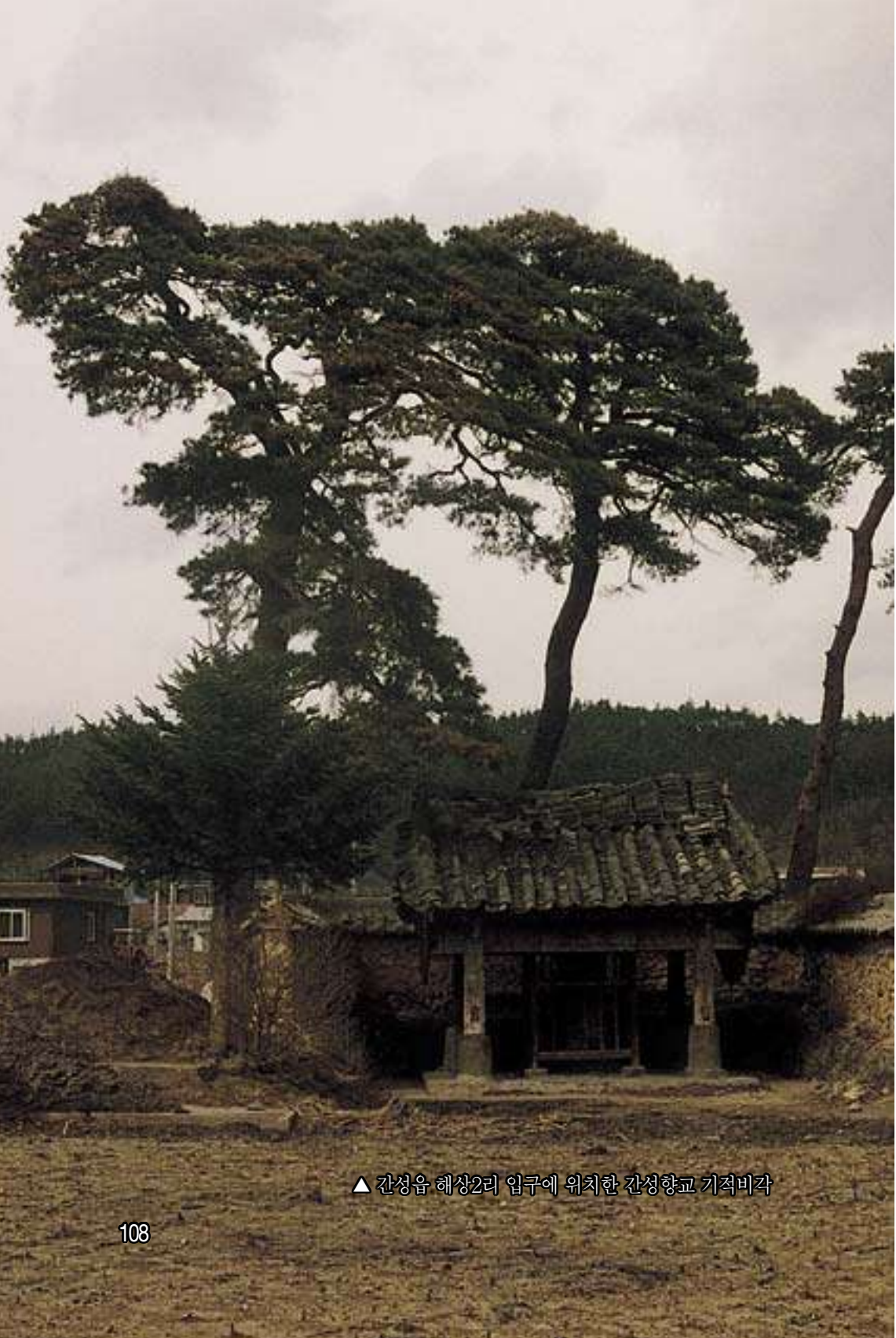
외세의 침략에 항거 향토애의 도량

고성군(高城郡) 군청소재지인 간성(杆城)에서 북서쪽 대대리(大垈里) 검문소로부터 진부령 가는길 교동리(校洞里) 입구에서 우측으로 조그마한 교량을 건너 4km 지점 해상2리 마을입구 좌측에 간성향교 기적비각이 위치해 있다.

연혁을 살펴보면 선조 25년 임지왜란을 당하여 왜적들이 간성향교를 점거하여 그들의 속성이 드러나 급기야 문묘강당을 숙소와 마굿간으로 개축하는 행패의 자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재지사족 김자발(金自潑)과 박응열(朴應烈)이 이들 외적의 행패에 크게 분개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왜적에 대항하여, 급히 성인들의 위패를 거두어 정결한 곳에 보관 했고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왜구는 향교를 불사르고 퇴각했다.

이후 김공과 박공은 사재를 털어 1592년 10월에 성묘(聖廟)를 중건, 다음해인 2월초에 낙성식을 갖고 제유생들과



▲ 간성읍 해상2리 입구에 위치한 간성향교 기적비각

함께 제례를 봉행할 수 있었다.

그후 도백(道伯) 정구(鄭逵)는 이 사실을 조정에 상주하자 임금님은 이를 가상히 여겨 金, 朴 등 제공에게 각 고을의 훈도를 임명하여 포상하였다 한다.

이로인해 간성향교에서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순조25년(1805) 묘정비를 건립하였다.

이기적비는 전영의정(前領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찬(撰)하고 전 형조판서(刑曹判書) 서영보(徐瑩輔) 서(書)하였다.

현재 기적비와 비각은 해상천 마을입구에 있는데 비각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기적비가 세워져 있고 비각의 둘레에 흙벽돌로 담이 둘러 쌓여져 있으며 비 앞에는 홍살문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비각은 약 70cm의 초석위에 기둥을 세웠으며 현재는 오랜 세월의 흐름과 함께 풍상에 쪼들려 기와지붕과 돌담 주변이 매우 퇴락하여 있으며, 선조들의 빛나는 열이 후손들에게 “나라사랑”과 향토애의 산도량으로 길이 전해지고 있다.





고성 망배단(高城 望拜壇)

망향의 한을 달래며 통일을 기원하는 징표

동해북부 7번국도를 따라 한참 달려가다 보면 현내면 대진리(최북단 대진항구)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통일전망대 안보공원을 못가서 대진뒷편 삼신산(三神山)으로 가는 소로길 1백50미터쯤 가면 48개단의 계단을 오르면 2백여평의 부지위에 세운 망배단(望拜壇)이 나타난다.

황톳마루 고개넘어 그리운 고향 꿈엔들 잊힐리야 우리의 소원 메아리 가락에 목들이 매어 어머니 품안으로 안기어 가는 이 길은 고향의 길. 북망의 길. 태초(太初)의 하늘과 땅이 있어 그 빼어난 조화만고(造化萬古)의 금강(金剛)이라. 천하(天下)의 강산인 성지(城地)가 있어 선남선녀(仙男仙女) 모여 터전을 이루니 산과 바다가 족히 넉넉하여 등을 부비며 대(代)를 이어 낙원(樂園)에 살았어라! 하늘도 원망(怨望)스러워라.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통한(痛恨)의 분단(分斷)앞에 하늘도 땅도 통기(通氣)이어라.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의 나날이 단말마의 인고(忍苦)를 기내하며 살아온 반세기(半世紀). 사람의 도리(道理) 못한죄 막중하며 하늘을 우리볼길 막연하여 우리모

두의 마음과 마음이 한줌의 흙, 돌을 모아 이에 적은 정성(精誠) 봉헌(奉獻)하며 다함께 머리를 조아려 속죄(贖罪)의 등(燈)을 님전에 바치며 고향(故鄉) 찾아 가는길로 기리고자 하나이다리는 음각이 망배단 비석에 새겨져 실향민들의 망향을 달리는 글귀가 적혀있다.

본 망배단 조형의 뜻함은 하태석(下台石)은 삼신산으로서 국토의 상징이고 중태석(中台石)의 구름의 형상(形象)은 높은 희망을 뜻한다.

이는 하태석과 아울러 고인돌을 이루며 상석은 완성된 인간상으로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뜻하고 옥루는 국보 제1호인 남대문추녀를 본받아 높은 민족기상(民族氣象)을 자랑하고 여섯골은 남북 7천만의 화합을 상징하고 있다.

현내면 대진리 삼신산에 위치한 망배단 ▼



이곳 망배단은 고성향우회(전강원도지사 박경원) 외금강면민회, 수동면민회, 장전면민회, 서면면민회가 고성군 망배단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뜻있는 지역인사들의 특별찬조금(전 이상용 강원도지사, 홍순일 고성군수, 김남성 고성군수, 권오훈 현내면장, 황기상 현내면장, 윤용수 거진읍장)을 지원받아 1988년 10월 22일에 준공되어 망향의 한을 삭이며 두고온 고향의 부모친지들에게 손모아 제배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곳이다.





향로봉 지구 전적비 (香爐峰 地區 戰蹟碑)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간성시내에서 북서쪽의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따라 오르면 진부령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

진부령 정상에서 진부령 미술관 있는 지점에서 북서쪽의 가파른 험준한 산길을 돌고돌아 군부대 차량으로 오르면 약40분의 시간이 경과돼야 향로봉에 오르게 된다. 이지역은 아직까지 군통제지역인 민통선 북방으로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향로봉은 태백준령으로 이어진 고성군의 진산(鎭山)으로 알려져 있고 해발 1천2백93m로써 인제군(麟蹄郡)과 고성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는 표고1천여m가 넘는 원봉(圓峰), 칠절봉(七節峰), 등이 서로 마주 건너다 보이고 있고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작봉(鵲峰일명, 까치봉) 고직봉(高直峰), 건봉산(乾鳳山)이 있으며 향로봉 정상에서 북동쪽의 조망은 금강산과 해금강이 눈아래 가까이 닿는다.

향로봉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서 지난 1973년 7월 10일 247호로 지정된바 있으며 천연생태계 보존구역으로서 갖가지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서 그 어느 곳 보다 이름이 나있으며 가을이면 금강산과 함께 어우러



▲ 진부령 정상에 세워진 향로봉지구 전적비

저 산과 계곡에는 온통 불이 붙은듯 가을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 황홀경에 빠뜨린다.

향로봉은 특히 진귀한 갯가지 야생초와 주목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산양 멧돼지, 노루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부령 정상도로변에 지난 1957년 7월 15일 간성읍 홀리 산1-81번지에 6·25당시 향로봉지구 전투전적비를 설치하였으나 진부령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1989년 8월 달에 현재의 위치인 진부령 미술관 뒤편 동쪽 언덕으로 이 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향로봉 지구 전투전적비는 맹호수도사단 용사들이 1951년 3월 7일부터 그해 6월 9일까지 양양과 간성을 탈환하고 계속하여 설악산으로 진격하였고 패주하던 적은 중동부 요충지인 인제를 방비하기 위해 설악산과 향로봉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괴뢰군 제5군단 예하 제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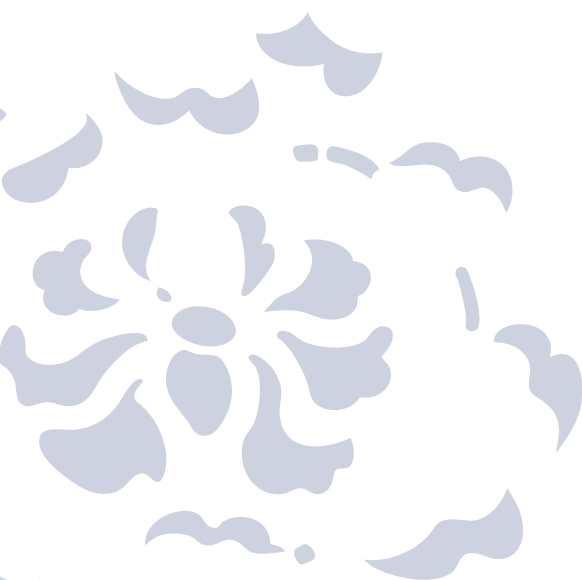
사단을 증원하여 아군 수도사단 및 제11사단에 89회라는 희유의 반격을 가해왔으나 도처에서 연전 연승을 자랑하는 아군용사들은 반격을 격퇴분쇄하고 설악산과 향로봉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오늘의 광범위한 중동부 일대를 수복하였고 혁혁한 공훈이 되었으며 전장병들의 영웅적인 전투를 높이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장렬하게 충국(忠國)의 발로로 고귀한 희생을 치러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자손만대에 길이 그 위훈을 전하기 위해 전적비를 1957년 7월 15일에 제3군단에서 세웠다.

또한 이 전적비 우측에 설화희생순국비(雪禍犧牲殉國碑)가 있다.

향로봉 지역은 예부터 통고지설(通高之雪)이라하여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다. 1956년 2월중순부터 3월초순까지 영동북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그때 향로봉에서 전선을 지키다 참변을 당해 비통하게 산화한 장병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세운비도 여기에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조국애에 대한 거룩한 정신적 상징물로서 향로봉 전투의 격렬했던 그날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대대리 충혼비 (大垓里 忠魂碑)

**조국수호 6·25 참전산화 젊은 장병들 충혼
기려!**

‘전우(戰友)여 그대들 피로 물든 이곳에 마음의 표식(標識)을 세우노라!’ 이렇게 비문에 적힌 충혼비는 고성군(高城郡) 거진읍(巨津邑) 대대1리(大垓1里)일명, 한터 솔밭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간성(杆城)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북천교”를 지나 검문소를 통과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 북천하구를 못미쳐 7번국도변 좌측에 건립되었는데 경관이 좋고 동해바다와 북천을 앞에 끼고 있는 곳이다.

이 충혼비는 1950년 6·25전쟁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이를 저지, 항전한 설악산지구전투, 315고지급방어작전, 향로봉 월비산(月比山)지구 전투에 참가해 물밀 듯이 남침한 괴뢰군들과 혼전을 거듭하다 전사한 젊은 장병 녀들의 영민과 조국 수호신으로 먼저간 이들의 충혼을 만대에 기리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향로봉 월비산(月比山)지구 전투와 315고지 급방어작전 또한 설악산지구전투, 밀고 밀리는 적진의 포화속 공방, 그것이였다.

동부의 최고봉인 향로봉 월비산은 동부(東部)의 최고봉으로서 동북쪽으로 고성시가(북고성)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서남쪽은 남도(南道)서안의 적진지와 적진지의 배후통을 이어 졌었다.

또 7번국도와 고성(高城), 장전(長筌), 원산(元山)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작전상의 요충지였다.

월비산전투는 아군과 괴뢰군에 있어 북진과 남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였으며 방어의 거점으로서 월비산 동쪽 2km의 지점에 315고지가 있어 월비산 공략의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다.

거진읍 대대리에 위치한 6·25 전적 충혼비 ▼



이에 우리국군은 1951년 10월 월비산을 점령했다가 다시 피탈당한 뒤 월비산 재탈환을 위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고 휴전될때까지 315고지에서 공방전을 계속했었다.

북한군은 월비산에서 315고지를 내다 보면서 거듭 반격을 시도해 왔으나 국군은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여 동해안의 수복지구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충혼비” 이전건립 경위는 1956년 9월 30일 대대리 302-1번지(삼거리 검문소 로타리)에 건립되어 있던 것을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성화봉성로 주변정비 사업으로 군(郡)에서 시행해 작가 이영일씨가 제작하여 현재 위치로 옮겨 88년 8월 15일 제막식을 가졌다.

이는 조국을 위해 혼쾌히 전투에 참가하여 이지역에서 호국영령의 신으로 의롭게 산화한 장병들의 영민을 빌고 충혼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간성읍 와우산 충혼탑

전쟁과 학정으로 숨진 호국영령 님 기려...

한국전쟁과 공산치하에서 숨진 김병권 육군대위의 17명과 민간인 김석기의 59명의 영령을 봉안한 충혼탑

고성지방(高城地方)에는 분단(分斷)의 현실을 증언해 주는 많은 비각의 건축조형물이 세워졌다.

6·25전 고성지방은 공산치하에 있을 당시 그들의 학정에 견디다 못한 군민들은 강릉지방에 있었던 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의 밀서와 성금을 보내는 공작을 하다 적발되어 애국동지들이 학살되기도 했다.

애국동지들과 6·25때 산화한 순국지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73년 9월 29일 당시에 재임한 박수균(朴壽均) 군수와 뜻있는 지역유지들이 힘을 합쳐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상리(上里) 양지바른 와우산(臥牛山)에 충혼탑(忠魂塔)을 세웠다. 그후 충혼탑건립위원회 위원장 유찬기(劉贊基) 및 당시 군수 최승호(崔乘虎) 재임시인 1984년 5월 25일에 보수한 바 있다.

이충혼탑은 지상에서 하늘로 자유와 평화를 절규하는 듯한 조형미의 충혼탑으로 고성지역에선 현대적인 탑형으로 조국분단의 6·25전쟁으로 희생된 김병권 육군대위의 17

명과 민간인 김석기(간성읍 금수리)와 59명의 영령을 봉안한 탑이기도 한다.

먼저간 이들의 애국애족적인 희생이 없었던들 어찌 국난의 위기를 모면하였을까!

나라의 위기에 살신성인으로 동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충혼탑에 담겨 반공투쟁의 횃불을 높이 밝혔던 그들의 충정이 후대들에게 애국애족의 귀감이 영원하리라.

▼ 간성읍 상리 와우산에 위치한 충혼탑





호림유격 전적비

구국의 일념으로 산화한 용사들의 넋 기려!

자유인에게 전해다오!!

여기 군번없는 호림용사들이 자유대환을 수호하다 반공전선에서 산화하였다.

고성군(高城郡) 현내면(懸內面) 마차진리 통일안보교육관(공원) 광장 서남쪽 양지바른 곳에 세워진 호림유격전적비.

이 비문에는 민영(民影) 문중섭(文重燮)씨의 헌시가 쓰여져 있는데 『사랑하는 전우들의 영전에 생존한 동지들의 애뜻한 마음으로 먼저간 님들의 충혼을 추모하고 일대 격전지인 갈림길 마루턱에 돌하나를 다듬어 길이나니 부디 조국의 수호신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 주시옵소서』라는 글귀가 음각되어 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동란 직전 북괴무장 게릴라의 남침을 저지 분쇄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루었던 애국청년들의 그 위훈을 아로새겨 그들의 충혼을 기리고 용전사실을 널리 선양하고자 이비를 세웠다.

1948년 2월 강원지역 청년들과 서북청년단원들이 주축이



▲ 통일안보 교육관 광장에 위치한 호림유격 전적비

된 민간인 3백16명이 유격대를 조직 호림이라 칭하여 북괴와 맞서 유격활동을 전개하다 아까운 청춘들이 산화하였다.

그들은 오직 자유수호의 일념으로 북괴의 무력책동을 저지분쇄하였다.

또한 그해 7월 그들은 저마다 머리카락을 뽑아 담배갑은 박지에 싸서 땅에다 묻고 생무덤을 만들어 누구든지 한명이라도 살아 남는다면 동지들의 유해를 거두어 장래를 치루어 주기로 혈명하였다.

이들의 전우애와 구국충정의 뜻을 받아 1967년 7월 생존 동지들이 18년전 생무덤에서 전우들의 분신을 찾아 설악산 기슭인 이곳에 영면토록 안장하였다.

이들 호림유격대원들은 강대석외 2백9명이 전사했으며

강오원의 41명이 생환했다.

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흘린피의 땀가가 오늘의 영광과 조국번영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자유수호의 징표를 후대에 길이 전하게 됐다.

호림유격전적비는 1986년 9월 30일 행정적인 지원과 호림동지회 인순창 김시홍의 부지 회사와 남산미술원 이일영씨가 제작하였으며 전면 휘호는 청하 이한용씨의 필체이다.





반공의거 순국비 (反共義舉 殉國碑)

호국영령(護國英靈)의 뜻을 기리는 순국비

51. 반공의거 순국비(反共義舉 殉國碑)

호국영령(護國英靈)의 뜻을 기리는 순국비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상리(일명, 와우산)기슭에 자리잡은 반공의거 순국비는 고성지역의 대표적인 반공 투쟁인들의 순국정신과 숭고한 얼을 기리는 비(碑)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56년 6월에 뜻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성읍 사무소에 기념비 건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고, 당시에 20만원의 소요경비가 책정됐다.

이에 순국비건립은 가칭, “반공의거 순국비 건립위원회(명예회장 주우영 고성군수)가 주축이 되었고 관내유관 기관이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순국비 건립위원회는 그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그사업이 거군적인 호응을 받아 1966년 3.1절을 기하여 군청뒷산의 옛 신사당지(神祠當地)에 순국비의 건립지로 최종 결정 되었다.

아울러 건립추진 위원회는 전국 출향인사들에게 취지문을 발송하였고, 고성경찰서 조운원씨가 작성한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후 1966년 3월 29일 본위원회는 순국비에 봉안할 대상자 선정기준을 한국전쟁이전의 반공투사로 결의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게 마련인데 건립기금 조성에 봉착되어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단을 도와 중앙정부의 협찬을 추진기로 결의하고 당시 지역 김종호국회위원의 주선으로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대통령에게 취지를 설명 찬조금을 하사 받았다.

이로서 순국비 건립은 활기를 찾아 동년 5월에 봉안 대상자 63명을 확정 봉안하고 “반공의거순국비”라는 대통령의 친필회호를 받아 1966년 8월 9일 제막식을 거행, 만대의 후손들에게 조국애의 뜻을 기리게 했다.

간성읍 상리에 위치한 반공의거 순국비 ▼





베트남 참전 기념탑 (參戰記念塔)

간성(杆城)에서 북천교(北川橋)을 지나 대대리(大垈里)검문소에서 거진쪽으로 1km지점 북천하구 대대1리 솔밭(일명, 푸른공원)소공원 베트남 참전기념비가 우뚝 세워져 있다.

이곳 기념탑 건립 취지문에는 세계(世界)의 평화(平和)와 자유(自由)를 수호(守護)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參戰)하여 국위(國威)을 선양(宣揚)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성을 세계만방에 떨쳤으며 1960년대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모든 분야가 암울했던 시대에 국가(國家)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초석이 되어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을 만든 베트남전 용사들은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까지 8년8개월동안 32만여명이 월남에 참전하여 5천여명의 꽃다운 젊은이 에 머나먼 이국의 하늘아래서 장렬(壯烈)히 전사(戰死)하였으며 지금도 10만여명의 전우(戰友)들이 戰傷(전상)또는 고엽제에 노출되어 아직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본 탑(塔)은 승리를 표현하고 좌우8개의 화강암 대리석(오석)원기둥을 세워 당시 파월된 부대명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면 가운데동으로 제작된 장병의 동상은 주월 한국군(韓國軍) 사령관 명령으로 “한국군은 백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뜻에 따라 작전중 포화속에서도 김학철 전우가 2명의 어린아이를 구출하여 안고 나오는 장면을 당시 프랑스 여자 중군 기자가 촬영하여 후일에 풀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을 형상화(形象化)하여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월남파병의 참뜻을 널리 알리고 그 참뜻을 후세들에게 우리 민족(民族)의 용맹성과 愛國愛族(애국애족)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었으며 건립비 1억2천만원으로 2004년 11월 준공했다.

이곳 동상아래 하대석 정면에는 오석에 “이영유”의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다.

거진읍 대대1리 소공원에 위치한 베트남참전 기념탑 ▼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저, 먼 별을 가다

역사와 열광의 기억으로 가다

손 길이 미치지 못할 과거의 시간 넘어

사랑과 기억의 하늘이에 하다

역정의 용사들,

별과 별사이의 장엄, 맑은 하늘

밝은 세상의 꽃이어라

조용한 함성과

정겨운 銀河의 꽃밭 사이에

우리는 섰어라

월남땅과 하늘이 오늘

한반도로 이어지는

손짓 사이에

하나의 뿌리가 되다

하나의 고귀한 뿌리가 되다

별과 별을 서로 잡아당겨

하나가 될때 까지

세상은 뜨거운 전우애로

조국의 이름으로 다시서다

가슴에 가득담은 정성과 용기가 온 세상 가득

하나의 등불이 되다 라는 시한편이 색여져 있으며 동상
장대석 후면에는 이탑을 건립추진한 김진선 강원도지사,
함형구 고성군수,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방기주 고성군
지회장, 박상희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김길선, 김세곤, 전

제남, 임양수, 탁주희, 최광선, 김의신, 장민부등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으며 또한 탑정면 좌측에 화강암 석상에 무천 신종택의 조각가의 베트남 참전부대별 참가자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맹호부대 강시구의 67명, 백마부대 김정남외 66명, 청룡부대 고승봉외 17명, 십자성부대 김관수외 23명, 비들기부대 마유복외 12명, 주월사령부 김길선외3명, 백구부대 김봉식외2명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사자는 남종현, 박명호, 서영운, 서영진, 서주봉, 송금철, 송재희, 이우순, 정태일, 엄기열, 엄인호, 황종원이라고 적혀있다.



창조의 탑 (創造의 塔)

도민(道民)의 진취적 기상을 고양하는 상징물

정도(定道) 6백주년 기념조형물인 창조의 탑(塔)이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산52번지의 2필지(대대리 솔밭소공원 내)에 세워졌다.

조형물의 건립배경은 「정도 6백주년과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지방화, 국제화 및 21세기를 향한 범도민의 진취적 기상을 드높이기 위한 상징물이다.

이 창조의 탑은 우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동서남북 4개의 입방체로 상징에 의미를 주었으며 4개의 기둥 중 가장 높은 부분은 8m가량으로 안배해 빼어난 고성의 자연경관과 군민의 우수성을 상징했다.

또한 산과 바다에 아름다운 명소로 시작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각기 다른 기둥 중 두 기둥은 오석(마천석)으로 제작함으로써 명암(음양) 대조가 선명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주변경관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금강산의 형상을 추구하고 있다.

또 4개의 기둥은 4대 지방선거와 강원도 6백주년의 유구한 역사와 고성군민의 소박하면서도 진취적인 기상과 통일 염원,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는 내용의 뜻을 담고 있다.

가운데 청동의 의미는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태양과 우주 만물, 천체의 관광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단풍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가시와 철조망은 분단의 한이 서려있는 지역민들의 통일을 염원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탑에서 음미해볼 수 있듯이 태양의 분위기, 관광지, 가시(염원), 전반적인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조형으로 작품화해 군민의 염원을 함축, 실현성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 것이다.

거진읍 대대1리 소공원에 있는 창조의 탑 ▼



이 창조의 탑은 지난 95년 6월 1일 착공하여 사업비 5천 만원을 들여 화강석, 마천석, 청동을 재료로 하여 높이 8m 가로 4m 세로가 2m이다.

탑전면에는 창조의 탑, 후면에는 80cm×100cm 규격에 음각, 내용은 제1회 도·시·군 자치단체장 및 도·시·군 의원을 뽑는 제4대 지방선거와 강원도 정도 6백주년을 맞아 군민의 새로운 도약과 밝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발전을 만대에 상징하고자 기념탑을 세운다는 뜻을 음각, 임명제 초대군수 장상국, 민선초대군수 이영구, 조각 및 제작자 박명근 이름이 음각되어 있으며 지난 1995년 7월 24일 준공돼 통일전망대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왕곡마을 동학의 빛(碑) (旺谷마을 東學의 빛)

동학교주 최시형선생 추모

태백준령의 한 줄기가 동(東)으로 뻗어 내린 터전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오봉1리는 1994년 민속촌 보존 지역으로 전국 제1호로 지정된 민중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 기도 하다.

1887년(포덕28)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도덕사회를 지향하는 동학(천도교)이 이곳에 전파되었다.

처음에는 이 마을에 동학 접주, 김명숙을 중심으로 함희연, 함의용, 함영인, 김응숙 등이 주동이 되어 활동하였다. 1889년(포덕30) 2월에 천도교 제2대 교조인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 선생이 수개월간 이곳 왕곡마을에 은거하며, 동학을 포교해 민중을 교화했다.

최시형 선생은 1861년(철종12) 동학에 입교하여 최제우(崔濟愚)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듬해 최제우가 처형당하자 동학 재건에 힘썼으나 1871



▲ 죽왕면 오봉1리 입구에 세워진 동학의 빛(비문)

년 진주민란의 주모자인 이필제(李弼濟)가 최제우의 기일(忌日)인 3월 10일에 민란을 일으키자 당국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평생을 피신과 은둔생활로 전전했다.

최시형은 자신의 이름을 본명 경상(慶翔)에서 시형(時亨)으로 바꾸고 교단직을 정비하여 1878년 개접제(開接制), 1884년 육임제(六任制)를 마련하여 신도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교리연구에 전념했다.

또한 포교를 위해 최제우가 지은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각각 1880~81년에 간행하기도 했으며 1894(갑오) 9월에 동학혁명기포령(총동원령)을 내렸을 때에는 동학군이 양양, 거진지역까지 쫓기하였으며 당시 동학군들은 왕곡마을 함일순 집에서 10여일간 머물

면서 전력을 가다듬었다.

최시형의 신관(神觀)은 「하느님을 인간과 동일시하며 나아가 만물과 동일시 한다」라는 끈기있고 의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위대한 인내천사상과 동학혁명정신의 교조로서 우리민족의 스승으로 후대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이에 후학들은 1997년(포덕138)년 6월 2일 동학사적 기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송문원)가 주축이 되고 후원으로 천도교 중앙총부 제자 김재중 교령, 동학민족통일회 고성군지부(지부장 강장성)외 80여명이 뜻을 모아 1997년 6월 3일 최시형 교주의 기념비제막식을 가짐으로써 역사의 뒀안길을 다시한번 후대손손 그 빛을 보게 했다.





금수리 사지 석탑 (金水里 寺址 石塔)

고려시대 석탑의 극치, 중요사료로 보존

고성군청 소재지인 간성읍(杆城邑)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3.5km지점인 고성산(古城山)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지(寺址)는 1천여평의 넓은 구릉으로 현재는 그 주변이 쑥 대밭과 잡목으로 덮혀 사찰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이곳 금수리 394번지에서 유일하게 영농을 하며 거주하다 작고한 함기태(咸基泰 74세)씨에 의하면 이곳에서 고려시대의 공양왕이 피신해 왔었다하며 사지주변에는 3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2기는 수행원으로 왔던 함전설(咸傳說)문중의 것이고, 이중 1기는 공양왕의 것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공양왕은 간성으로 피신을 왔다가 삼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말도 있으나 묘역정화시 묘곽이 출토된 것이 왕의 무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수타사가 건립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존속

했었다고 하는데 현재 사지(寺址)의 남동쪽에 있는 고성산(古城山)은 본래 고숭산(高崇山)으로 이어 고성산(高聖山)으로 개칭되었다가 현재는 古城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사지와 석탑에 대해서는 조선 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지의 이름은 수태사(水汰寺)로 3층석탑이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현상으로 보아 사찰의 명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석탑은 4층 옥개석까지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는 5층석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석탑은 단층기단위에 5층석탑을 올린 평면방형의 석탑이다.

일변 121cm, 높이 30cm의 방형 지대석은 1석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면에는 2구씩의 안상이 조식되어 있다. 기단역시 1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4cm×95cm×40cm의 크기이다.

각 면에는 양 우주와 1탱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갑석은 파손이 심하고 상면에는 굽형 괴임대 형식의 초층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1매석으로 이루어진 초층탑신은 52cm×52cm×40cm 크기로 양우주만이 모각되어 있다.

이후 1층 옥새석과 2층 탑신석, 2층옥개석과 2층 탑신석, 3층옥개석과 4층 탑신석, 4층 옥개석과 5층 탑신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어 각 탑신에는 양 우주가 조출되어 있다.

일층 탑신의 높이가 40cm임에 비해 2층 탑신의 높이가 8cm여서 전체적으로 체감이 맞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옥개석에는 각층 각형 4단의 받침이 낮게 조출되어 전체적으로 완만한 1/4호형을 이루고 있으며 낙수면은 급하고 전각의 반전은 둔중하여 고려시대 석탑이 지닌 옥개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록 원형의 석탑은 아니지만 일석으로 구성된 기단과 탑

신과 옥개석이 한돌로 조성된 점 등은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사적 가치가 더욱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휴전선 이남의 고성군 일원에 현존하는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는 석탑임에 비추어 볼때 그 중요성은 사료로 보존가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석탑의 전고(全高)는 2.6m로 고려시대 중기 이후의 조성된 것으로 문화유적 전문관계자는 추정하고 있어 앞으로 석탑의 보존은 물론 사지를 복원,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수리 사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탑





초도리 금구도성지 (草島里 金龜島城址)

신라시대 외침을 막아내던 거북 형상의 섬

옛 기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지 45간성군(卷之四十五杆城郡) 산천(山川) 초도재열산현동 6리(草島在烈山縣東六里)에는 간성군(杆城郡)의 북쪽 30~35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고성(高城)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성(城)의 규모나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고성군(高城郡) 현내면(縣內面) 초도리(草島里) 금구도(金龜島) 성지(城址)는 초도리의 나룻샘에서 정동(正東)으로 동경 $128^{\circ} 26'$, 북위 $38^{\circ} 29'$ 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금구도는 조선보물고적사자료(朝鮮寶物古蹟查資料)에 의하면 국유(國有)로 초도리 부락의 동방 약 2백간(東方約二百間) 363m의 해상(海上)에 금구도가 있다하였고 연장(延長) 약 1백20간(約一百二十間) 2백18m이며 성지는 대부분 축조불완전이라 하였으며, 전국 유적목록에는 부락

의 동방 약20간의 해상에 금구도가 있고 연장이 약1백20간 대부분토축(大部分土築)이라 했다.

그리고 문화유적 총람상에는 문화재 관리국(문화재 연구소)에 의하면 금구도성지는 둘레가 약100m의 흔적만 남아 있고 자연석으로 높이 5m정도를 쌓은 것이 13m정도 남아 있다고 했다.

금구도성지는 초도리항 앞 해상 3백m에 있는데 1천여평 가량의 섬(島)으로서 신라시대때 침범하는 적을 방어하는 기지로 사용, 해안을 지키던 성지이다. 이곳의 금구도성지는 그 형태가 마치 거북이 형상이어서 금구도라 불려왔는데 지금도 이 섬에는 당시 신라수군들이 돌로 참호를 구축하고 성을 쌓았던 성터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금구도는 초도리산 1번지로서 섬전체는 해송과 바위, 대나무숲으로 덮혀져 있으며 갈매기와 이름 모를 새들이 비상하고 있으며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바다오리와 가마우지 새들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 현내면 초도리 금구도 성지 전경



또 섬주변에는 많은 작은돌과 바위가 희귀한 형태로 물밑에 깔려 있어 놀래기, 전복, 해삼등 산해진미의 갯가지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화진포해수욕장 개발과 함께 청정해역을 자랑하며 섬의 모습이 돋보여 해상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거북형 머리쪽 부분엔 여러명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평평한 “너래바위”가 있고, 바위섬에서 샘물까지 솟아올라 독특한 섬의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하다.





오호리 죽도성지 (五湖里 竹島城址)

대나무와 관목으로 덮인 수군(水軍)기지

속초(束草)에서 7번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12km 지점에 있는 죽도성지(竹島城址)는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오호리(五湖里) 송지호(松池湖)의 남쪽꼬리와 마을 동북쪽 바다 가운데 있다.

이곳 죽도(竹島)에는 대나무와 관목, 괴암괴석으로 1만여 평이나 되는 무인도로서 동해북부지역에선 가장 큰 섬이기도 하다.

예부터 섬(島)위에 군영(軍營)터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흔적의 잔해가 남아있다.

또한 옛날에는 대나무 이외에 오동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며 죽도(竹島)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대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죽도는 신라, 고려시대부터 북방에서 침입해 오는 외적을 막았던 수군(水軍) 기지였다.

죽도에는 약 3백60여m의 성지가 남아 있는데 당시에 이식(李栻 1724~1726 재임기간)이 수성군(간성군)군수로 부임한 이후 이곳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술을 연마하면서 다시 쌓은 성(城)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간성군에 3곳의 봉화대가 있었는데 죽도봉화는 남쪽의 양양 덕산에 신호되었다 한다.

그리고 죽도에서 잘자라고 있는 대나무로 수만개의 화살을 만들었는데 함경 북도의 육진(六鎭)에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죽도는 섬앞에 작은 바위섬이 있는데 물에서 건널수 있으며 바닷물의 깊이는 가슴에 찰 정도이다.

해안에서 죽도까지는 물길이 남쪽과 북쪽해안에서 서로 맞부딪쳐 모래가 쌓여 수심이 얇고 물빛이 청아하다.

죽도에서 서쪽 맞은편에 송지호(松池湖)해수욕장이 있어

신라때 수군기지로 알려진 죽도 성지 ▼



여름 피서철에는 전국에서 30여만명씩 모여들어 인산인
해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푸르른 동해바다와 파아란 대나무숲(가을엔 황금색)이 어
우러져 해안의 백사장은 명사십리를 방불케 한다.

또한 옛날에는 죽도성지 남쪽에 있는 용(龍)바위에서 가
뭍이 오면 개를 잡아 용왕제를 지내면 비가내려 풍어풍년
농사를 내려준다는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

죽도성지도 바다로부터 침입해 오는 북방의 동여진 적을
쳐부수며 동북방을 수비하던 요충지로서 중요한 수군(水
軍)기지로서 내침을 감시했던 곳이라 한다.





원암리 사지(元岩里 寺址)

구전(口傳)으로만 전하는 옛 흔적...

원암리 사지(元岩里 寺址)는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속칭 탑벌) 소재에 위치한 것으로서 현재 한화리조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옛절터는 최근에 밭(田)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이 사지에는 석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현재는 사지 모두가 경작지이거나 복토된 상태여서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길이 없다.

토성면 원암리 18번지에 거주하는 송영식(宋永植 70세) 씨에 의하면 이 사지는 6.25부터 휴전후 약 3~4년까지 1군단 사령부와 연병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이곳의 석축도 당시에 쌓아진 것이라고 한다.

이곳 사찰 주변마을에 들어서면 옛날에는 빈대가 들끓었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그후 화암사로 이전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송씨에 의하면 6.25때 까지 약2m가량 추측되는 부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붕괴되어 있었

고 1군단이 주둔할 당시에 없어졌다는 것이다.

사지내에는 길이 34m 너비 18m 높이 4m의 3단 석축이 남아 있는데 1군사령부 주둔시 개축하여 옛 자취는 전혀 볼수 없다.

주변에서는 고려시대의 소작으로 추정되는 기와편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조선보물 고적조사자료」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이곳 석탑은 부도라 하는데 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일 레미콘 전방 150m 지점이라 점치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이 울창한 참나무숲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훼손 파괴되어 흔적을 찾을수 없는 사지라는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 토성면 원암리 사지전경





간촌리 사지(艮村里 寺址)

3천여평의 사지(寺址)에 잔해만이...

간촌리 사지(艮村里 寺址)는 고성군청 소재지인 간성읍(杆城邑) 상리(上里)에서 서쪽으로

약1.5km 떨어진 간촌리(艮村里 - 속칭 부처바위골)에 약 3천여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사지(寺址)이다.

현재는 사지가 위치한 전지역(高城)이 논(畓)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의 논둑과 산록의 이곳 저곳에는 옛 성지를 말해주듯 기와편과 각종 토기들의 잔해가 발견돼 사찰과 관련된 물증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 전답의 소유주인 윤윤오(尹潤五 간촌리 233번지 거주)씨의 말에 의하면 91년도 논을 개토하는 과정에서 약 5m정도 굴토를 했었는데 당시 논바닥에서 많은 양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개토과정에서 남아있던 유무의 유적들이 파과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간촌리 사지에는 석불이 있었다는 기록이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기술돼 있다고 한다.



▲ 간성읍 간촌리 사지에 남아있는 문관석

그러나 불상은 현존하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현재 간촌리 21번지에 거주하는 전봉택(全鳳澤, 72세)씨와 전봉학(全鳳學, 83세)씨에 의하면 일제시대까지 좌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전봉학씨는 11세되던 해에 심한 학질에 걸려 고생하다 병의 퇴치를 위해 불상앞에 가서 기원했는데 병이 말끔이 나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들의 증언으로 들어볼때 앞의 기록과 같이 석불이 있었는데 약 30년전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현재 사지의 산중턱에는 문관석(文官石) 2기와 부도의 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묻혀 있고, 문관석 2기중 1기는 반파되었으나, 또 다른 1기는 코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을 뿐 완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문관석은 양손을 가슴에 모아 홀(笏 벼슬아치가 조현할 때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던패)을 잡고 있는데 전고(全高) 1m 크기의 부도의 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는 지름 75cm의 크기로 원형(圓形)으로 옛사지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햇빛을 보길 바라고 있는 듯하다.



마차진리(麻次津里)제당

마을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풍습
을 간직한 곳...

고성군(高城郡) 현내면 마차진리는 동해안 최북단(통일 전망대 가는길) 동해와 인접한 아담한 어촌마을로 4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작은 포구이다.

서쪽으로 배봉리와 마달리, 남쪽에 대진리, 북쪽으로 명파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옛 기록에는 마차진(摩差津)이라고 되어 있다.

이곳은 마직리(馬直里)와 합쳐지고 무송대(茂松臺)부근의 수달리도 편입하였는데 고성군 「수성지」에 의하면 무송대는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이 이곳에 왔다가 지은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마차진리의 제당은 마을의 오른쪽 야산의 숫성황과 마을 앞의 바위섬인 송도에 있는 암성황으로 나뉜다.

송도(松島)는 「동국여지승람」에도 “바닷가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으니 전에는 송도라 했으며 송림이 무성하고 주변의 희귀한 괴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아름답기 그지 없으며

모래길로 육지와 이어지고 바닷물이 불면 섬에 들어갈 수 없으며 파도 치면 모래스치는 소리가 난다”하였다.

이 섬주변 바위에는 매일 자시(子時)가 되면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자마석(子磨石)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차진리의 제당은 두군데로 모두 당집은 없고 큰소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삼으며 그앞에 제단을 쌓아 매년 음력 9월 9일 새벽3시 진설(陳設)하고 4시경에 성황제를 지낸다고 한다.

제관은 남자들만 참여하고 제물은 메주, 포 등이며 명태, 가자미, 열갱이가 필수적인 제물로 들어가고 돼지머리를 “말”이라 부르며 함께 놓는다.

제물은 반을 갈라서 암성황인 송도와 숫성황인 마을야산

현내면 마차진리 제당(일명 무송정) ▼



으로 갈라서 같은 시간에 지내게 되는데 바다쪽인 암성황부터 지낸다.

제관들은 평복을 깨끗하게 입고 제사를 지내는데 도가집에서 제주(술)를 담궈서 도가집은 두집을 택하여 기일을 맞춘다.

제사는 헌관이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으며 배례후 소지를 올리며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다.

이 마을 황재욱(남 83세), 백병수(여 78세)씨에 의하면 곳은 하지 않고 마을의 재앙을 막고 행운을 축원하는 뜻에서 해마다 두군데에서 서낭님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음력 5월 단오날엔 무당을 모셔다가 성화당에서 굿판을 크게 벌였었다고 했다.





진부령(陳富嶺) 알프스 스키장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은령의 명소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홀리(屹里) 산1번지 해발 1,052m의 마산봉(馬山峰) 알프스(리조트)스키장은 원래 북한(北韓)의 삼방스키장과 함께 일제때부터 운영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스키장은 197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84년도 대영 알프스리조트회사(주)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스키장개발이 이루어 졌다.

현재 15만여평의 대지위에 국제규모의 스키장으로 국내 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시설현황은 호텔(콘도) 산장 등 6동의 건물에 1백91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실내수영장, 스토프, 리프트가 6면에 3기(2인용~4인용), 주차장이 4개소에 1만4천8백33평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레스토랑, 커피숍등 각종 위락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1일 3천8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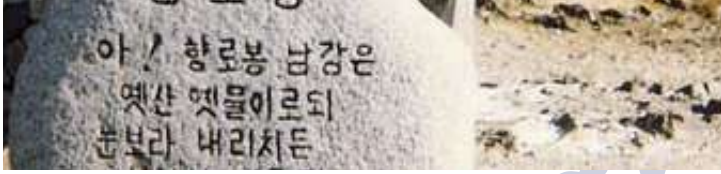


간성읍 진부령 알프스 스키장 ▲

또한 2.5km스로프의 길고 넓은 구배가 다양하며 경사도가 30~40° 정도여서 스키어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국동계스키대회등 각종규모의 국내스키대회를 유치하여 스키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부령알프스 스키장은 고성군의 자연환경(自然環境)의 보고로서 지형지세가 동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향로봉(1,296m)과 태백산맥의 백미인 금강산(金剛山) 1,638m을 접하고 있어 설질이 좋고 국내에서 제일 늦게까지 스키를 즐길수 있는 곳이다.

또한 수려한 산과 청정한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경관으로서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해북부지역의 중심 스키장으로 더욱 발돋움하고 있다.



향로봉(香爐峰)과 진부령(陳富嶺)

향로봉은 표고 1,293m로 고성군과 인제군, 회양군과 3개군의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신라시대에 가리라봉(迦里羅峰)이라고 불리웠으며 수성지의 기록에는 마기라산(麻耆羅山)이라 기록되어있다. 큰 가뭄이 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내려오고있다. 향로봉을 따라 이어지는 고진동계곡, 진부령계곡, 머내골, 제추골, 용추골 등은 풍광이 빼어나고 골짜기의 雲霧(운무)는 가히 선경에 이루고 있다. 또 골짜기마다 기암절벽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최근 학술조사에서 희귀한 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성지방에서 영서쪽으로 통하는 관문은 진부령(陳富嶺)이다. 진부령은 수성지 기록에 의하면 영서로 통하는 소로가 매우 험하고 좁아서 1632년(인조10년)관에서 모집한 역승(役僧)이 처음 개통한 고개인데 통행이 적고 비교적 순탄한 길이어서 통행이 용이하나 겨울에는 눈으로 길이 막이다 라고 적혀있다. 표고는 625m로 굉장히 높은 고개는 아니지만 진부령의 가을은 온 산과 계곡이 불이 붙은 듯 온통 붉게 불든 단풍으로 유명하다.



향로봉

아! 향로봉 남강은
옛산 옛물이르되
눈보라 내리치든
차창한 싸움터에
쓰러진 전우들의 묘소는
간곳이 없도다.

제피군단장
조준

▲ 향로봉 정상에 세워진 표석

진부령 도로는 1981년 대통령령으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면서 44.6km도로에 대한 확장공사가 이루어져 지역 농수산물의 도시운송과 고성지방을 찾는 관광객의 주요 교통의 요충지역이다.

현재 진부령(陳富嶺)표석(標石)이 진부령 미술관 옆면 정상에 세워져 있으며 지난 1957년 7월 15일 세운 향로봉지구전적기념비(香爐峰地區戰蹟記念碑)가 있다. 비문에 색여진 내용에는 1951년 3월 7일부터 그해 6월 9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국군이 중공군과 싸워 대승하여 마침내 설악산(雪嶽山)과 향로봉지구를 점령했다는 피어린 전적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중공군의 불법 침공으로 이지역에서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산화한 곳이기도 하다.

▼ 진부령 고갯길 정상에 위치한 안내석



우리 고성군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
화가 서려있는 자랑스러운 애국충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고장입니다.

遼城의 脈

印刷日 · 2005. 7. 20.

發行日 · 2005. 7. 20.

編 著 · 崔 善 鎬

發行人 · 文化院長 黃 鍊 仁

編輯人 · 事務局長 南 炳 旭

전 화 · 033-681-2922

팩 스 · 033-681-2928

印 刷 · 대성문화출판사

전 화 · 033-651-4354

〈非 賣 品〉

이 책은 고성군비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